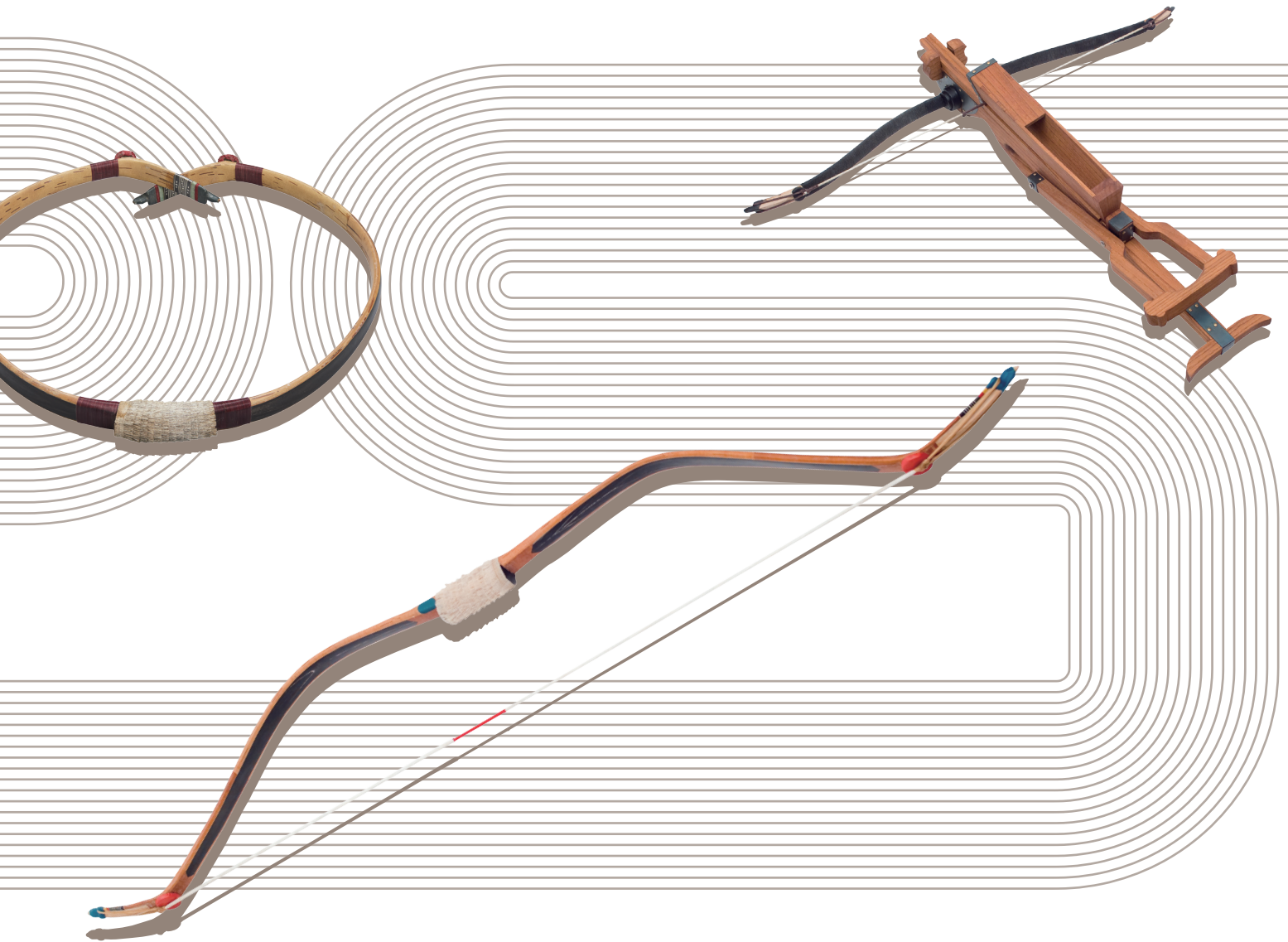


2025

부천활박물관 인문학 특강

활쏘기 문화의 전승과 활용 : 지역에서 세계로



c o n t e n t s

1부

- 기조강연 **무형유산으로서 활쏘기 문화의 가치와 발전방향**
강연자 **나영일**(활쏘기문화보존회장, 서울대 명예교수) 6
- 발제 1 **궁시장(弓矢匠)과 활문화의 문화유산 가치**
발제자 **정연학** (前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과장)
토론자 **김기훈** (前육군박물관장) 24

2부

- 발제 2 **'살아있는 유산'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
: 지역-무형문화유산-박물관의 접속**
발제자 **조성실** (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 학술연구교수)
토론자 **배은석**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교수) 46
- 발제 3 **도시를 겨누다-부천시 활쏘기 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전략**
발제자 **조소연** (동국대학교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토론자 **이재완** (예천박물관장) 62

개 회 사

문동수 | 부천활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활쏘기 문화의 전승과 활용: 지역에서 세계로」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활쏘기 문화의 유구한 전통과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역문화유산으로서의 지속 가능성과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활은 5세기 무용총 수렵도에서 조선의 대사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사냥의 도구이자 예의 실천, 공동체의 상징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육예(六藝)의 하나로 여겨지며, 단순한 무예를 넘어 인격 수양과 공동체 유대의 수단으로 존중받았습니다. 특히 임금과 신하가 함께 활을 쏘는 대사례는 활문화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국가 의례였습니다.

이와 함께, 활과 화살을 제작하는 궁시장 역시 국가 의례와 군사 장비 제작에 참여한 공인된 장인으로서, 의례를 비롯한 여러 기록에 이름을 남기며 활문화의 기술적 기반을 이어온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장인 전통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2020년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데 이어, 2022년에는 부천 출신 김윤경 궁시장이 보유자로 인정받으며 지역 활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우리 박물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전시와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활을 만들고 쏘며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기억을 담아내는 ‘살아 있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장인과의 협업,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강화는 박물관의 역할을 단순한 보존에서 실천적 전승으로 확장시키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제시될 다양한 제안들은 박물관의 향후 방향을 구체화하고, 전시 기획과 교육, 연구 활동을 설계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활쏘기 문화는 단순한 전통 무예를 넘어, 장인의 손끝에서 완성된 활에 공동체의 기억과 자연과의 조화, 활터에서 함께 수련하며 쌓아온 유대와 존중의 정신이 담긴 복합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활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잇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유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귀한 걸음을 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박물관은 앞으로도 활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그 전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한병환 |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활쏘기 문화의 전승과 활용: 지역에서 세계로」라는 뜻깊은 주제로 마련된 학술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소중한 시간 내어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모든 발표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활 문화는 단순한 전통 무기를 넘어 공동체의 삶과 정신, 자연과 조화를 담아낸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특히 부천은 김장환 선생을 비롯한 궁시장들의 장인정신과 유품을 바탕으로 국내 유일의 활 전문 국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독보적인 자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활과 활쏘기 문화가 지닌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지역성을 조망하고,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그 활용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활박물관이 활 문화 전승과 확산의 중심지로서, 지역의 문화적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과 더욱 가까이 만나는 플랫폼으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세미나를 성심껏 준비해 주신 부천활박물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나눠질 깊이 있는 논의가 우리 문화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부천활박물관 인문학 특강 일정표

- 행사명 : <활쏘기 문화의 전승과 활용 학술세미나>
- 일 시 : 2025. 11. 27.(목) 14:00~16:30
- 장 소 : 부천시립박물관 어울림 강당(통합관 1층)

Time	Title	Speaker
14:00 ~ 14:10	개회 및 내빈 소개	사회 김영주 (부천시박물관)
	개회사	문동수 (부천활박물관장)
	축사	한병환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단체사진 촬영		
1부		
14:10 ~ 14:25	기조강연 무형유산으로서 활쏘기 문화의 가치와 발전방향	사회 김영주 (부천시박물관) 강연 니영일 (활쏘기문화보존회장, 서울대 명예교수)
14:25 ~ 14:55	발제 1 궁시장(弓矢匠)과 활문화의 문화유산 가치	발표 정연학 (前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과장) 토론 김기훈 (前육군박물관장)
14:55 ~ 15:05	휴식	
2부		
15:05 ~ 15:35	발제 2 '살아있는 유산'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 : 지역 - 무형문화유산 - 박물관의 접속	사회 이관호 (충청남도 무형유산위원회 위원장) 발표 조성실 (전북대학교 쌀·삼·문명연구원 학술연구교수) 토론 배은석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교수)
15:35 ~ 16:05	발제 3 도시를 겨누다 - 부천시 활쏘기 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전략	발표 조소연 (동국대학교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토론 이재완 (예천박물관장)
16:05 ~ 16:25	종합토론	좌장 이관호
16:25 ~ 16:30	폐회	전체

2025 부천박물관 인문학 특강

—
**활쏘기 문화의
전승과 활용**
: 지역에서 세계로
—



기조 강연

무형유산으로서 활쏘기 문화의 가치와 발전방향

강연자 나영일

활쏘기문화보존회장, 서울대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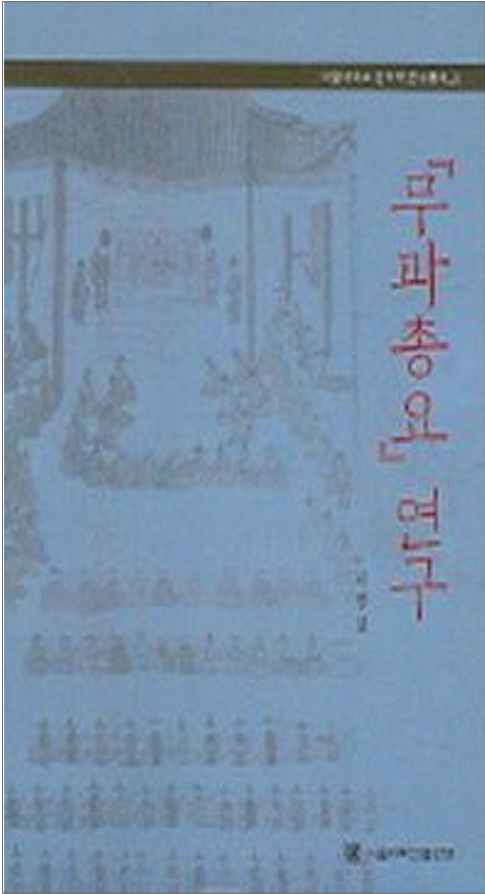


무형유산으로서 활쏘기 문화의 가치와 발전방향

나영일
서울대 명예교수
활쏘기문화보존회 회장
석호정 사두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국가무형유산 '활쏘기'
3. 활쏘기문화의 가치
4. 활쏘기문화의 발전방향:
5. 나가는 말: 전통활쏘기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일



1. 들어가는 말

- 1810년, 지금의 국방부 인사과에 해당하는 무선사(武選司)의 서리, 임인묵(林仁默)이 편찬한 『무과총요(武科總要)』
- 무과시험은 대부분 활쏘기! 무과시험은 조선왕조동안 800번, 대부분 활쏘기
- **K스포츠의 대명사는 활쏘기!**
- 2004년 석호정 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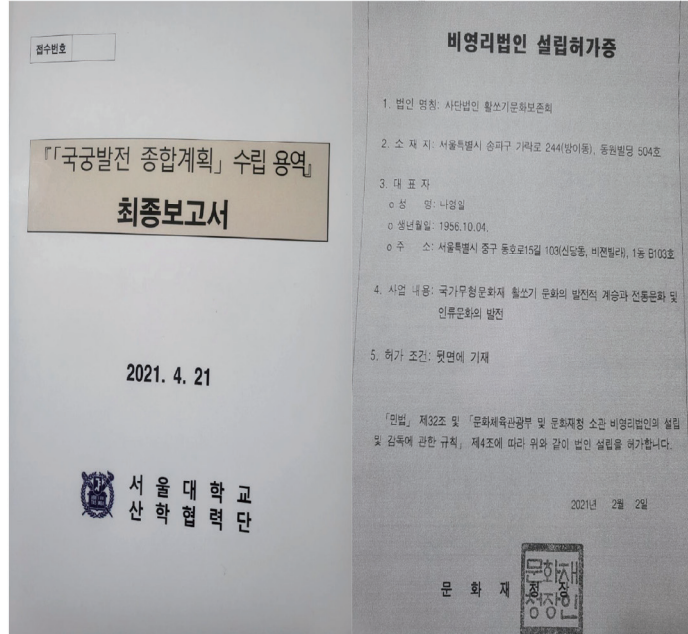
국궁교수회(2015), 한국궁도대학연맹(2017)
활쏘기문화보존회(2021) 설립에 기여





(사)활쏘기문화보존회 설립

-박원순 서울시장 도움 '국궁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수행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의 설립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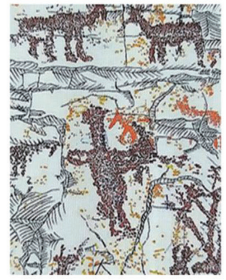
2. 국가무형유산 활쏘기

- 2020년 7월 30일 국
가무형유산활쏘기
Hwalssoji(Archery)
- 국가유산포털소개 :
국가무형유산 궁시
장 故김박영 보유자)
궁시장, 국가유산청



반구천 암각화

- 1971년 발견된,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약 7,000년에서 3,600년 전인 신석기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 고래잡이
- 천전리암각화 화랑유적
- **202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반구대암각화 하단 부분에 위치한 **활을 들고 사냥하는 장면 묘사, 이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 보이는 활인 짧은 단궁과 닮음**
- 그동안 1,500여년전의 고구려벽화에 보이는 수많은 수렵도에 보이는 활쏘기보다 훨씬 오래된 7,000년전의 활쏘기 모습
- 2025울산세계궁도대회 개최



3. 활쏘기문화의 가치

- 1) 역사적 가치: 오랜 역사, 전통 계승
 - 2) 문화적 가치: 고유한 문화유산, 공동체 문화
 - 3) 교육적 가치: 정신 수양, 전인적 성장
 - 4) 유무형 자산의 보고: 풍부한 유산, 순우리말
- ❖ 활쏘기는 단순한 스포츠 활동이 아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전통문화이며, 국가무형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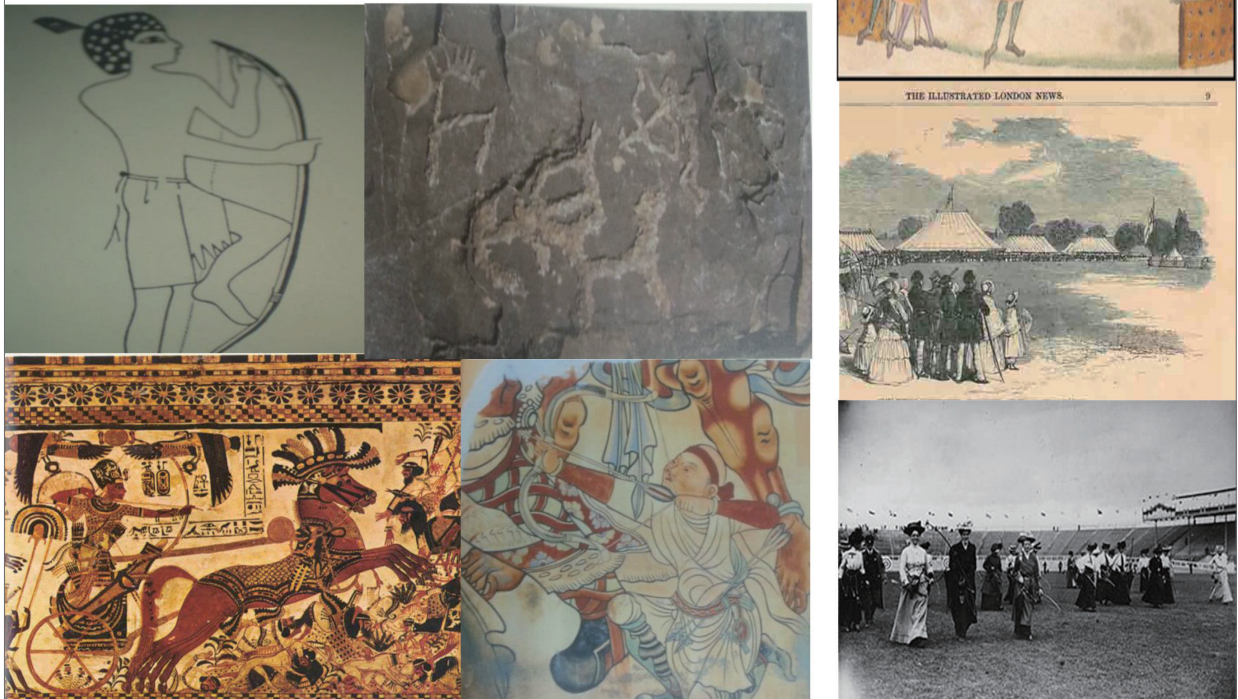
문화보존(文化保存)이란

- 한 사회나 집단이 가진 전통, 가치, 생활양식, 언어, 예술, 관습, 사상, 건축물, 유물 등 문화적 요소들을 원형에 가깝게 유지하고 후세에 전승하려는 활동
- 개념: 문화보존은 단순히 옛것을 보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지닌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인정하고, 변화 속에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도록 보호·관리·계승하는 것을 포함
- 대상: 유형문화, 무형문화
- 의의: 한 공동체의 정체성 유지, 후손에게 역사적·문화적 자산 전승, 현대 사회에서 문화 다양성 보장과 창의적 발전의 토대 제공
- 방법: 법적 보호(문화유산 보호법,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등), 교육과 전승(전수 교육, 지역 축제, 박물관 전시 등), 공동체 참여(지역민과 후손의 자발적 보존 활동)
- 현재와 미래를 위해 우리의 문화적 뿌리를 지켜내는 행위

활쏘기는 인류보편의 문화



이집트, 중국, 영국, 올림픽 양궁



하인리히 왕자와 고종

- 성문영(1870-1947)의 기억, 조선일보(1938. 1. 3)
- 독일외무성자료, Das Polieische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 하인리히 자신과 통역 라인도르프(Reinsdorf)의 독일 기록
- “1895년 민비가 살해된 북궐에서 하인리히 왕자에게 한국 궁수들의 솜씨를 보여주었다.”
- 하인리히왕자의 대한제국방문과 전통 활쏘기의 부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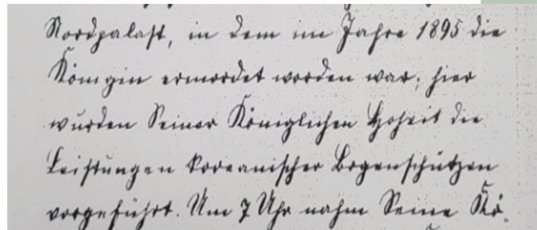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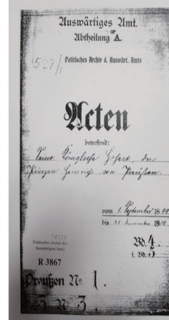
○덕국 천왕(요석) 덕국 천왕
 리씨가 류림 초도 대한에 온다
 말은 이왕 괴지 중년거니와 온다
 드른속그 천왕이 이월 구일에 대
 한에 온다더라

KOREA, THURSDAY, JUNE 15TH, 1899.

ARRIVAL AND RECEPTION OF PRINCE HENRY.

H. I. G. M.'s Deutschland with H. R. H. Prince Henry of Prussia as Admiral commanding the German fleet in Asiatic waters arrived in Chemulpo at 4 p. m. on Thursday, June 8th. As the guest of the Emperor great preparations had been made to receive him with honor. The day previous Hon. Yi Chai-sun, and General Miu Yung-whan with a number of officials came to Chemulpo in order to be here and escort the prince to Seoul. A company of the imperial guard with a battery of two guns and a squad of so-called cavalry, under the command of Col. Yi Huk-kiun were also down to salute the distinguished visitor.

On arrival on whole party did to partake of it provided for the man had been to mount was the the rag tag and b cede made its w for the occupati-
 Immediately r ing of the royal v made for visiting took place at si- being accompan rations, includin five same r arrival at the N



일반논문

05 하인리히 왕자의 대한제국 방문과 전통 활쏘기의 부활

나영림

The Visit to the Korean Empire of Heinrich Prince of Prussia in 1899 and the Revival of Traditional Archery

Na Young-Ri

- I. 서론
- II. 대한제국과 독일제국의 관계
- III. 하인리히 왕자의 국빈 방문과 활쏘기
 1. 하인리히 왕자의 국빈 방문 배경
 2. 하인리히 왕자의 국빈 방문 보고서
 3. 1899년 6월 11일 방문
 4. 하인리히 왕자가 본 활쏘기와 활터
- IV. 성문영의 기억과 전통 활터의 부활
 1. 유교제도의 폐지와 활쏘기의 단절
 2. 성문영의 기억
 3. 사계(寒美)의 전통 활터의 부활
- V. 결론

4. 활쏘기문화의 발전방향

비전	활쏘기 중심도시의 위상 회복과 활쏘기의 전통보존 및 계승발전 방안 마련		
미션	활쏘기의 전통문화가치 재조명과 활쏘기 중심도시 서울의 위상 회복		
	활쏘기의 관광자원화 활쏘기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성과목표			
부문별 성과목표	활쏘기의 전통가치 재조명	활쏘기활성화	유네스코 등재
	활터복원	활쏘기인구 50만	등재절차 검토
	활터증설	활쏘기의 학교 교육 및 군 도입	2024년 등재 신청
	100년활터 가치조사	활터관광자원화	단독 또는 남북한공동등재
인프라	지속가능한 활쏘기 기반 구축		
	자율과 책임의 전통활터 운영체계 구축		
	활쏘기의 혁신과 발전을 통한 전통계승		
	활터 및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한중일 삼국의 활쏘기 경쟁

- 삼국의 무예: 중국은 창, 일본은 칼, 한국은 활
- 일본은 2008년 중학교 무도(궁도, 유도, 검도)를 필수화
- 중국은 20년 전부터 전통활을 복원시키고, 학교교육에 도입
- 한중일 삼국의 활쏘기 경쟁은 국방의 문제. 그 이유는 활쏘기의 내재적 가치가 단순히 체육이 아니라, 국방과 유비무환의 심신단련의 목적에 있기 때문

2025-11-21

세계민족궁대회(2007-2015) 생활체육궁도연합회와 대한궁도협회의 통합(2016) 활쏘기의 유네스코등재를 위한 노력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몽골 나담축제(2010): 활쏘기, 씨름, 말타기
 튀르키예(2019): 활쏘기, 기사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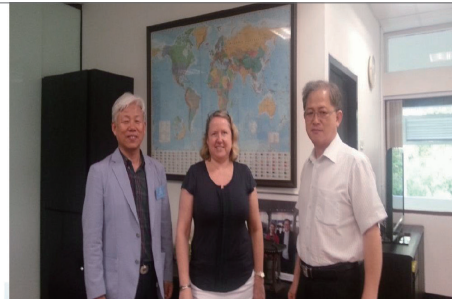


• UNESCO 핵심인사

• 방콕사무소 – Susan

• 북경사무소 – Smith

• 파리사무소 – Melo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Sector
 for Social and Human Sciences in
 UNESCO



2025-11-21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5. 나가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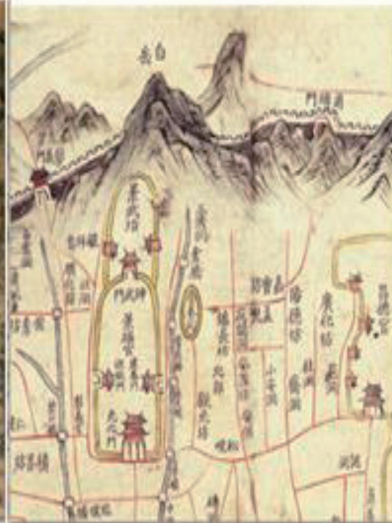
- 활쏘기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2023년 서울지역 전승공동체 활성화사업/국가유산청+서울시지원

한양의 사라진 활터



한양 활터 순례길



근대신문에 보도된
서울지역 활쏘기



2023/11/25
백호정앞에서 안전
기원제후
장안편사놀이거행



서울 중구 훈련원 공원에서 **130년 만에** 열린 활쏘기 대회/ 중구청
2024. 10. 5~6

- 1800년 무과정시: 훈련원 11,591명, 모화관 10,050명, 남소영 14,250명



한양활터순례길
2024/10/25



장안편사놀이: 서울시무형유산



석호정에서 중구청장기대회 '활백일장'형식, 한복에 가산점 부여!, 궁체상 등, 한복의 날 운영



부천활박물관(2004)
인천전통편사놀이(2023), 남수정 100년사(2024)



감사합니다

2025 부천박물관 인문학 특강

—
**활쏘기 문화의
전승과 활용**
: 지역에서 세계로
—



발제 1

궁시장(弓矢匠)과 활문화의 문화유산 가치

발제자 정연학

前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과장



「궁시장(弓矢匠)과 활문화의 문화유산 가치」

정연학(비교민속학회장, 전 국립민속박물관 과장)

1. 머리말

궁시장(弓矢匠)은 활과 화살을 만드는 장인이다. 활을 만드는 장인은 궁장(弓匠), 화살을 만드는 장인은 시장(矢匠)이라 한다. 활과 화살의 발명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자취를 남겼다. 활과 화살은 다양한 동물을 더욱 손쉽게 사냥할 수 있게 되어 식량의 공급도 더 풍부해졌고,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또한 사냥을 넘어 전투의 무기로 사용되면서 효율적인 공격과 방어가 가능해졌다. 전근대시기 활과 화살이 없는 전장(戰場)이란 상상하기 힘들었다. 무기로서 활과 화살은 이젠 민속 경기 및 스포츠로 재거듭 발전했다.

한국의 전통 활쏘기는 2013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동서양 문명에서 활은 총의 사용이 활성화되면서부터 점차 군사 무기로서의 가치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활쏘기는 근대 이후 스포츠 종목의 하나로 새롭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00년 파리 올림픽에서 남자 양궁이 시범 종목, 1904년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에서는 여자 양궁도 시범 종목에 포함되었다. 1931년에는 국제양궁연맹(현 세계양궁연맹)이 창설되었고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양궁은 다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2024년 현재 세계양궁연맹 가맹국은 156개국에 이르며,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자국 전통 방식의 활쏘기가 스포츠이자 문화유산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의 전통 활 모습은 고구려 벽화속에서 찾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국궁인 각궁(角弓)이 보편화되었지만, 분류에 따라 불려지는 명칭은 다양하다. 모양에 따라 직궁(直弓)과 만궁(彎弓), 재료에 따라 목궁·각궁·철궁·철태궁(鐵胎弓), 재료의 수에 따라 단일궁(單一弓)·복합궁(複合弓), 크기에 따라 장궁(長弓)·단궁(短弓), 세기에 따라 강궁(強弓)·연궁(軟弓), 용도에 따라 예궁(禮弓)·정량궁(正兩弓), 장식에 따라 붉은 칠을 한 동궁(彤弓)과 검은 칠을 한 노궁(蘆弓) 등으로 분류된다.

화살은 축과 살대, 깃, 오니로 구성되어 있다. 재료에 따라 대나무 화살인 죽전(竹箭)과 나무 화살인 목시(木矢)로 구분하며, 용도에 따라 유엽전(柳葉箭), 편전(片箭), 박두(朴頭), 신기전(神機箭), 총통전(銃筒箭) 등으로 구분한다. 유엽전은 화살의 축이 버드나무잎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120보 거리에서 쏘게 되어 있었다. 주로 사냥이나 무과 시험에 사용되었으며, 화살이 길고 기다라서 장전(長箭)이라고도 불렸다. 편전은 보통 화살의 절반 정도 크기인 30cm 남짓한 짧은 화살로 애기살이라고도 하며, 대나무를 반으로 쪼갠 덧살(통아)이라는 기구를 이용

해 발사한다. 조선의 주요 무기 가운데 하나이었다. 박두(朴頭)는 나무촉을 사용한 화살로 중목 박두(中木樸頭)는 조선 초기에 무과 시험용으로 잠시 사용되었다. 신기전은 조선시대에 화약의 힘으로 쏘는 화살이고, 총통전은 총통에 사용된 화살을 가리킨다. 그밖에 깃이 넓고 큰 철촉을 달은 사냥용 화살은 붉은 색칠을 한 것을 동시(彤矢), 검은 색칠을 한 것을 노시(盧矢)라 했다.

활 만드는 재료는 대나무, 뽕나무, 물소뿔, 소의 심줄, 화피 등이 있다. 한국의 활은 쇠뿔과 쇠심줄을 사용한 각궁(角弓)이란 점이 특징이며, 화살이 멀리 나가는 강궁(強弓)에 속한다. 활짚의 손잡이 부분과 양끝에는 참나무와 뽕나무를 각각 대지만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 죽심(竹心)을 넣고 그 안팎에다 쇠뿔과 쇠심줄을 민어부레풀로 접착시켰다. 활 표면은 뱀나무 껍질인 화피로 감싸 습기로부터 활을 보호하여 내구성을 높인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활은 각궁(角弓)이다. 궁(弓)을 활이라 부르는 것은 한국 고어(古語)로 『계림유사(鷄林類事)』에 “弓曰活 射曰活索”이라 함으로 알 수 있다. 제작된 형태는 구부러진 모습으로, 시위를 걸 때에는 활의 휘어진 방향의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걸고 쏘는 것이 특징이다.

화살은 곧고 가벼우며 탄성이 좋은 대나무를 주재료로 하며, 화살 끝에 활줄을 거는 오늬 부분은 싸리나무를 주로 사용한다. 오늬를 견고히 하고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 그 부분을 도피(桃皮, 복숭아나무 껍질)로 감싼다. 비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새의 깃을 달고, 금속 등으로 촉을 부착한다. 화살 가운데는 효시(嘯矢)는 쏘면 소리가 나는 화살로, 전투의 시작을 알릴 때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처음 시작된 것을 가리키는 말로 ‘효시’라고 한다. 즉 효시는 바로 우는화살에서 기원한 것이다.

활과 화살의 제작시기는 습기가 많고 기온이 높은 계절에는 어교(魚膠 : 부레풀)가 잘 응고되지 않으므로 접착이 곤란하다. 따라서 궁시 제작은 가을에서 봄(10월~다음해 3월) 사이에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궁시장의 현황과 미래, 활과 관련된 편사놀이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 궁시장 현황과 미래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되고, 국가가 무형문화유산을 지정, 보호하게 되었다. 궁시장 종목지정 논의는 197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양재연 교수에 의해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인 『한국의 궁술』이 1970년 12월에 발간되었다.¹⁾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당시에는 화살보다는 활에 방점을 두었고, 전국의 궁장 18명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문화재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1971년 궁시장 종목이 중요무형문화재 47호로 결정되었다.²⁾ 종목지정과 함께 그해 9월 13일에 궁장 보유자로 김장환(60세, 부천), 장진섭(55세, 서울), 권영록(55세, 예천) 등 3인을, 시장으로 이석훈(52세, 부천)이 지정되었다.³⁾

1) 양재연, 『韓國의 弓術』(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80號), 문화재관리국, 1970.12.

2) 김일환, 「궁장 김장환 선생의 생애와 업적」, 고 김장환 선생 서거 40주기 학술세미나, 2024.11.14., 부천활박물관, 16-17쪽.

3) 『文化財』6호, 문화재관리국, 1972.9, 189-192쪽.

2025년 10월 현재, 그간 공시장(전승교육사 포함)은 총 22명이 배출되었다. 우연히도 공장과 시장이 각각 12명이며, 그 가운데 16명이 세상을 떠났다. 현재 명예보유자 김종국 시장을 제외하고 5명의 공시장(공장 3명, 시장 2명)이 공시 제작과 전승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故김박영(1929~2011) 공장의 아들 김윤경(金允晷) 공장도 2022년 10월 11일 국가급 공장으로 인정되었다. 대를 이어 2대째 국가무형유산 공시장이 되었는데, 공시는 대를 이어 가계를 계승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는 전승능력 80점, 전승환경 20점으로 이루어졌다.

<표 1> 국가급 공시장 현황

연번	보유구분	이름	성별	기예능	지역	인정일	해제일
1	명예보유자	김종국 (金鍾國)	남	시장	대구	2021-09-01	
2	보유자	박호준 (朴浩濬)	남	시장	인천	2008-05-07	
3	보유자	권영학 (權寧鶴)	남	공장	경북	2015-05-27	
4	보유자	유세현 (劉世鉉)	남	시장	경기	2022-10-11	
5	보유자	김성락 (金成洛)	남	공장	경북	2022-10-11	
6	보유자	김윤경 (金允晷)	남	공장	경기	2022-10-11	
7	보유자	유영기 (劉永基)	남	시장	경기	1996-12-10	2023-02-18
8	전승교육사	유세현 (劉世鉉)	남	시장	경기	2004-03-20	2022-10-11
9	전승교육사	김성락 (金成洛)	남	공장	경북	2009-09-17	2022-10-11
10	전승교육사	김윤경 (金允晷)	남	공장	경기	2009-09-17	2022-10-11
11	보유자	김종국 (金鍾國)	남	시장	대구	2008-05-07	2021-09-01
12	보유자	김박영 (金博榮)	남	공장	경기	1996-12-10	2011-04-11
13	전승교육사	박호준 (朴浩濬)	남	시장	인천	1984-04-01	2008-05-07
14	전승교육사	김종국 (金鍾國)	남	시장	경북	1987-07-01	2008-05-07
15	보유자	박상준 (朴尙俊)	남	시장	서울	1978-02-23	2001-08-24
16	보유자	장진섭 (張鎭燮)	남	공장	서울	1971-09-13	1996-04-17
17	전승교육사	권오규	남	공장	기타	1984-12-01	1991-08-28
18	전승교육사	김기원 (金基源)	남	공장	경기	1982-09-01	1988-06-24
19	보유자	권영록 (勸寧錄)	남	공장	경기	1971-09-13	1986-05-10
20	보유자	김장환 (金章煥)	남	공장	경기	1971-09-13	1984-07-05
21	보유자	이석훈 (李碩薰)	남	시장	기타	1971-09-13	1980-12-11
22	보유자	조명제 (趙命濟)	남	시장	경북	1978-02-23	1980-06-09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급에 비해 지자체 공시장은 3명에 불과하다. 경상북도 공장은 1980년 권영학 공장이 인정되었으나, 그가 2015년 5월 27일에 국가급 공시장이 되면서 현재는 종목만 남아 있고 보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시장 명칭을 ‘예천공장’으로 명명한 것은 예로부터 활을 만드는 고장으로 예천을 강조한 것이다. 지자체 3명의 공시장 중 2명이 공장이며, 세종시의 보유자는 전의 공인(全義 弓人) 이름으로 지정되었다. 세종시 주장웅 공장은 故김장환 공장에서부터 활 제작 기술을 배웠고, 충북 양태현 시장은 故조명제 시장으로부터 배웠다.

<표 2> 지자체 공시장 현황

보유구분	이름	성별	기예능	지자체	인정일	비고
보유자	주장웅	남	全義 弓人	세종	2012.12.31	故김장환
보유자	-	남	예천공장	경북	1980.12.30	권영학
보유자	양태현	남	시장	충북	2006.11.24	故조명제
명예보유자	권무석	남	공장	서울	2000.04.20	예천

출처: 국가유산청

그러나 현재 공시장은 전승 기술의 단절과 저렴한 개량공시 보급으로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전통 기술에 대한 낮은 관심 속에 숙련된 장인의 고령화와 후계자 양성에 심각한 상황이다. 전통 활과 화살에 대한 문화적 관심이 낮아지고, 그 가치와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시장 보유자의 후진 양성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왔듯이 공시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제작 및 보급도 필요하다. 또한 공시와 관련된 전시회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활과 화살을 전시할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통해 감정과 메시지를 재미있고 생생하게 전달하여야 할 것이다.

3. 활쏘기와 국가등록문화유산 확대

활쏘기와 관련하여 사정(射亭), 시지(試紙), 사포계문서(社布契文書) 등이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정은 활 쏘는 사람들이 무예 수련을 위하여 활터에 세운 정자를 뜻하며, 광주광역시 관덕정(光州 觀德亭), 서울 황학정(黃鶴亭), 전주 완산구 천양정(穿楊亭) 등 3곳이 지정되었다. 그 가운데 광주광역시 관덕정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이고, 서울 황학정은 서울유형 문화유산, 전주 천양정은 전북문화유산자료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다.

<표 3> 국가·시도 등록문화유산

유형	명칭	소재지	지정일	건수	비고
국가등록 문화유산	필야정 시지 (必也亭 試紙)	전북 정읍	2012.08.13	1건	1936 丙子年閏三月二十日
	광주 관덕정 (光州 觀德亭)	광주 남구	2017.10.23		1961.7.2 준공
서울 유형문화유산	황학정 (黃鶴亭)	서울 종로	1974.01.15	건물 1동, 토지 154.1m ²	1899 건립
전북 문화유산자료	천양정 (穿楊亭)	전주 완산구	1984.04.01	1동	1830년 건립
전남 문화유산자료	열무정및사포계문서일괄 (閔 武亭및社布契文書一括)	영암 영암읍	1988.03.16	일괄 24책	

광주 관덕정(光州 觀德亭)은 1961년 7월 2일 준공된 신청 건물이다. 다른 사정에서 볼 수 없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정면의 처마를 들어올려 곡면을 이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처마부위의 서까래를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형상화하고, 처마의 아래 공간이 사대(射臺)로 되어 있다.

황학정(黃鶴亭)은 고종 광무 2년(1898) 경희궁 회상전 북쪽에 궁술연습을 하던 사정이었다가, 1922년에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다. 사정은 앞면 4칸, 옆면 2칸 규모이며, 지붕 옆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과거제도가 폐지되면서 조선 무사(武士)들은 손에서 활을 놓기 시작하자, 고종(高宗)은 조선 백성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상무정신(尙武精神)을 고취하는 데는 활쏘기만한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황학정을 설립하였다고 한다.

전주 천양정(穿楊亭)은 숙종 38년(1712)에 다가천 서쪽 냇가에 세웠으나 홍수로 떠내려 간 후 경종 2년(1722)에 다가산 밑에 다가정(多佳亭)이란 정자를 짓고 활터로 사용했다. 순조 30년(1830)에는 이곳에 또 다른 정자를 세우고 옛 이름을 따서 '천양정'이라 했다. 이후 북향인 다가정은 젊은 한량들 전용으로, 아늑한 골짜기에 남향으로 자리잡은 천양정은 주로 노인층이 사용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천양정은 다가정, 군자정 등과 함께 강압에 의해 하나로 통폐합되었다. '천양(穿楊)'이란 뜻은 버들잎을 화살로 꿰뚫는다는 것으로, 신묘한 활 솜씨로 이름 높았던 조선 태조 이성계의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⁴⁾

전북 정읍의 필야정(必也亭) 시지(試紙)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시지는 궁술 경기 기록지를 가리킨다. 필야정(必也亭) 시지는 호남 4군 연합궁술경기회가 주관한 대회에서 한지를 길게 이어 붙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어느 고을 소속, 누가, 몇 발을 명중했는지를 기록한 것이다. 이 중 한 장에는 병자년 윤삼월이십일(丙子年閏三月二十日)이라고 기록되어 1936년에 작성한 시지임을 알 수 있다. 필야정 시지는 국궁의 진행 방법과 기록 방식에 대한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았다.⁵⁾

영암군 영암읍 '열무정및사포계문서(閔武亭및社布契文書)' 일괄은 전남 문화유산자료로 지정

4)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heritage.go.kr).

5)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heritage.go.kr).

되어 있다. 열무정은 옛 영암읍성 안에 있던 사정이며, 사포계는 숙종 36년(1710)에 창설되고, 고종 17년(1880) 열무정 중건 이후 계속 계모임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보존하고 있는 관련 자료로는 『사포계안절목』, 『사포계완의』, 『사포계좌목』, 『사포계중수안』 등 24책이다.

현재 전국의 활터 수는 대략 400개⁶⁾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다. 또한 많은 사정들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활쏘기와 관련된 시지, 사계문서 등이 넘쳐난다. 그럼에도 문화유산 지정에는 별 관심이 없으며, 체계적으로도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등록문화유산 지정은 궁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아카이빙을 통해 한국의 궁시문화를 이해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편사와 무형문화유산

조선시대 활쏘기대회는 그 시행 주체에 따라 국가와 민간으로 구분된다.⁷⁾ 국가 주도의 활쏘기 대회는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대사례(大射禮)와 관사(觀射), 무예 시험을 위한 시사(試射), 군사들의 무예 연마를 위한 습사(習射)로 구분된다.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 활쏘기는 3년 마다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을 왕에게 천거할 때, 그 선택을 위해 활을 쏘는 향사례(鄉射禮), 사족들의 심신 단련을 위한 사회(射會) 등으로 구분된다.

편사(便射)는 편을 나누어 활쏘기를 한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으로서, 민간에서 사정(射亭)을 중심으로 행해진 대표적인 활쏘기대회이다. 편사놀이에 대한 기록은 조선후기 홍석모(洪錫謨, 1781~1857)가 지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1849)에 ‘매년 3월과 9월에 서울과 지방의 무사와 동리 사람들이 모여 과녁을 펼쳐 걸고 편을 나누어 활쏘기 대회(射會)를 하여 겨루었다’⁸⁾고 밝히고 있다. 편사 용어 대신 사회(射會)로 적었지만, 19세기에 편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시기도 근래까지 지켜지고 있다. 즉, 모내기 등 바쁜 농번기 전인 3월과 수확을 마친 9월 농한기에 활쏘기 대회를 한 것이다.

1)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유산, 장안편사놀이

장안편사놀이는 1990년 11월 14일 제6회 장안편사대중회를 마치고, 1992년 9월 23일 구미에서 열린 민속예술경연 화합한마당 때는 서울의 ‘장안골 편사놀이’로 경연종목으로 참여하였다. 1994년 서울 6백년의 기념행사로써 황학정에서 장안편사놀이를 재현한 후, 그 역사와 가치가 인정되어 2000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편사놀이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례는 서울이 유일하다.

사정은 조선 전기에는 관청에서 관리하였으나 임진왜란(1592) 이후 선조(재위 1576~1608)는 경복궁 동쪽에 오운정(五雲亭)을 지어 일반인에게 개방하니 이것이 민간 사정의 시작이었다.

6) 대한궁도협회 홈페이지, 2025년 현재 활터수

7) 심승구, 활쏘기대회, 한국민속대백과사전(<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5299>).

8) 홍석모(1781~1857), 『東國歲時記』 三月 月內乃 : 京外武士及里民, 張侯分耦爲射會, 以賭勝負, 飲酒爲樂. 秋節亦然.

이후 지방에도 많은 사정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성행하게 되었으며, 한말에는 도성 안쪽에 다섯군데의 사정이 있어서 이것을 서촌 오사정(西村 五射亭)이라 하였다.

1900년대 민간의 편사놀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는데, 이것은 사정의 복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중화의 『조선의 궁술』(1929)에서는 민간의 사정은 갑오경장(1894-1896) 때 잠시 폐쇄되었다가, 1899년 고종이 경희궁 안에 황학정을 만든 이후로 황룡정, 석호정 등의 주변 활터가 점차 복원되었다고 보았다. 장안편사놀이가 행해지는 황학정은 일제강점기인 1922년 서촌의 등과정(登科亭) 옛 터로 옮겨졌으며, 그 이후 행해진 편사놀이가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30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성내와 성외 연합의 시사(矢射)대회는 61년 전(1871년, 고종 8)에 중단되었다가 석호정, 황학정, 일가정, 청룡정, 서호정, 화수정 등 모두 여섯 사정의 유지가 모여 대회를 열게 되었다. 21일 오전 9시부터 성내 편으로 석호정, 황학정, 일가정의 사원(射員) 30여 명과 성외 편으로 청룡정, 서호정, 화수정의 사원 30명이 사직공원 안에 있는 황학정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 경기를 펼쳤다(매일신보 1932년 5월 22일)

언론기사에 근거하면, 1900년 서울 필운대(弼雲臺)와 사직동 등지에서 아동편사가 성행하여 경찰이 엄금한 적이 있다.⁹⁾ 그러나 1900년대에는 왕조를 중심으로 편사가 시작되었다. 1903년 백호정에서 내시(內侍)와 대관(大官)이 편사를 하였는데, 기악이 연주되고 관중이 구름처럼 모였다.¹⁰⁾ 1908년에는 백호정에서 영성군, 의친왕 등이 편사대회를 개최하였다.¹¹⁾

1900년대 이후 서울, 인천, 개성¹²⁾ 등 도시에서 편사놀이는 성행하였다. 1913년 편사대회에 대한 부정적 신문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하지만,¹³⁾ 서울 황학정과 백호정의 편사는 지속되었다.¹⁴⁾ 또한 황학정과 제동 취운정(翠雲亭)과 편사를 해서 취운정이 승리를 하였는데, 이때

9) 皇城新聞 1900.11.3. 嚴禁便射.

10) 皇城新聞 1903.9.29. 大張便射.

11) 每日申報 1908.5.27. 편사대탁.

共立新報 1908.7.8. 편사는 언용고.

12) 每日申報 1912.6.9. 책제목 :開城의 便射 準備, 개성의 편사를 준비.

每日申報 1912.7.7. 虎亭의 決雌雄, 개성의 편사 성풍.

每日申報 1912.7.26. 개성군의 편사 성행.

每日申報 1913.5.24. 開城 便射와 주의, 개성의 편사로 인하여, 부랑자들이 용춤 춰.

每日申報 1918.6.25. 便射의 연기, 이십오일에 쏜다.

13) 每日申報 1913.9.24. 上下村이 便射會, 아래 위대가 편사를 하여, 팔자들은 참 좋은 양반들

每日申報 1913.9.26. 便射之弊가 甚矣, 어찌 생각하면 좋은듯하나, 도리어 폐단이 적지 아니해

每日申報 1913.9.26. 白虎亭의 便射會, 구태나 편사가 되는군, 이번 경비도 적지 않아.

每日申報 1913.10.2. 上下 便射의 怪懸, 한번 쏘았다가 편사를 또.

每日申報 1913.9.30. 背城一戰의 便射, 이번에는 어떻게 되던지, 그만 두기로 작정이라고.

每日申報 1913.11.29. 大便射會의 準備, 아마도 온당치 못한 일.

14) 每日申報 1913.8.27. 백호정의 사랑 편사.

每日申報 1917.6.6. 성황이던 백호정 편사, 황학정에서 졌다.

每日申報 1918.5.28. 靑龍 黃鶴의 便射, 황학정이 두 점을 이겨, 27일에 도편사.

每日申報 1918.5.29. 再次의 便射, 청룡정에서 21점을 이겼더라.

每日申報 1918.6.29. 黃鶴亭서 便射, 성황을 이루었다.

각 사정의 ‘주장’이 명기되어 있다.¹⁵⁾ 여기에 1932년에는 활쏘기를 스포츠로 보급 목적으로 조선궁술연구연맹이 조직되면서 활쏘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궁술연구연맹 총재 취임을 기념하여 황학정에서 편사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정무총감(政務總監) 이마이다 기요노리(今井田清徳)도 참여하였고, 당시 편사 모습도 사진으로 담았다.¹⁶⁾ 예천 활 제작이 1920년대 왕산골 안동 권씨의 집성촌에서 시작된 것도¹⁷⁾ 민간의 사정 활성화와 무관하지 않다. 편사는 그 이후 규모가 커지면서 궁술대회, 궁도대회, 활쏘기대회로 불려졌다.

서울과 개성 지역간 편사놀이를 자주 펼치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황학정에서 개성의 삼도사정(三都射亭)과 편사를 개최하였고,¹⁸⁾ 개성 관덕정은 서울 한량을 초청하여 편사를 하였다.¹⁹⁾ 개성 호정(虎亭)에서 개성 한량과 서울 황학정 및 전군 사정의 한량 혼성팀과 편사를 하였다.²⁰⁾ 그러나 양 지역의 편사에 인명 사고도 발생하기도 하였다.²¹⁾

1930년대 개성 편사놀이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매일신보 1937년 기사에 따르면, 개성 관덕정(觀德亭)에서 호정(虎亭), 반구정(反求亭) 세 사정이 편사를 하여 관덕정(80점)이 엄청난 점수차로 1등을 하고 반구정(66점), 호정(65점) 순이었다.²²⁾ 이때 활쏘기 대회에 3천 명의 관중이 참여하였다고 하니 호응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생들도 편사놀이를 즐겼다. <매일신보> 1921년 7월 1일자에는 대정권번(大正券番)과 한성권번(漢城券番) 두 권번 기생 100여 명은 만주의 빈민들을 위하여 구경꾼에게 입장권을 팔아 편사대회를 열기도 하고,²³⁾ 조합끼리 편사를 여러차례 열었다.²⁴⁾ 1921년 7월 1일자 신문에는 경무대에서 열린 기생 편사대회 사진을,²⁵⁾ 1923년 6월 14일에는 궁술대회에 나가기 위해 편사를 연습하는 한성권번과 경성권번 기생의 모습을 사진으로 실었다.

每日申報 1918.7.16. 사랑편사가 시작.

每日申報 1932.5.22. 황학정의 편사대회.

15) 1912.4.29. 黃鶴亭의 便射.

16) 每日申報 1932.10.9. 知事와 府尹推戴코 弓術發展에 盡力 조선궁술연구연맹조직하야 正副總裁就任便射.

每日申報 1932.10.9. 弓術聯盟創立紀念便射.

17) 『예천 활문화 조사 및 발전적 방안 연구 보고서』, 예천군청, 2016.

18) 每日申報 1913.6.10. 최근의 開城: 京鄕 연합 便射會.

19) 每日申報 1914.7.11. 觀德亭의 挑戰, 京省 개성의 또 편사.

20) 每日申報 1914.6.6. 地方通信: 京畿道, 大舉便射(開城).

每日申報 1914.7.24. 地方通信: 京畿道, 聯合便射(開城).

每日申報 1915.6.20. 지방통신: 경기도, 聯合便射更行(개성)

21) 每日申報 1914.7.7. 黃鶴亭 便射, 사람 하나 쏘이고, 개성편이 패군.

22) 每日申報 1937.6.11. 便射大會盛況.

23) 每日申報 1921.7.1. 妓生의 便射大會, 在外同胞를 爲하여, 약간의 수입이라도 기부코자 칠월삼일부터 개최.

每日申報 1921.7.3. 今日에 便射大會, 京省궁 추성문안 경무대에 성대히.

24) 每日申報, 1921.9.10. 妓生이 便射會.

每日申報 1921.6.13. 妓生의 便射, 대정과 한성두권번 기생들 활싸움.

25) 每日申報 1921.7.1. 기생편사대회.

편사는 『조선의 궁술』²⁶⁾에서 언급하였듯이 양편의 사원을 15명씩 선정하여 3순(巡)의 시수를 계산하여 승부를 가른다. 편사는 행해지는 사정의 규모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되는데, 『조선의 궁술』에서 언급한 서울에서 행해진 편사 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 4> 서울의 편사놀이

종류	내용
射亭便射 (터편사)	두 사정이 각각 한 편씩 편성하여 활의 기예 승부
洞便射 (골편사)	구역과 구역이 각기 구역 안에 있는 사정을 연합하여 시합. 남촌과 북촌
長安便射 (장안편사)	3구역이 각각 편을 짜서 활쏘기 대회. 1구역(성안), 2구역(모화관(慕華館)·홍제원(弘濟院)·창의문 밖·북한과 남문 밖·애오개(阿峴)), 3구역(양화도·서강·마포·용산·한강·독섬·왕십리·동소문 밖·손가장(孫家庄)) *한성을 별칭으로 장안이라 함
斜廊便射 (사랑편사)	사랑채 무사들이 사원을 편성하여 활쏘기 경기. 사랑편사는 사정의 관할이 아니므로 각기 사랑채의 당호(堂號)로 구분하여 경기. 사원의 편성은 수시로 하여 같지 않고 한량만 또는 한량과 출신을 혼합해서 경기를 치름
射契便射 (사계편사)	구역과 사정을 막론하고 사계(射契)가 형성되어 있는 사정에 한하여 사원을 편성해서 경기 거행. 사원편성의 방법은 사랑편사와 동일
閑良便射 (한량편사)	터편사에 한하여 관습적으로 하는데 한량만으로 편성
閑出便射 (한출편사)	사정과 구역의 구분 없이 한량과 무과에 급제한 출신이 연합하여 시합
三同便射 (삼동편사)	당상관과 무과급제 출신, 한량 등 세 계급이 연합하여 편성. 터편사에 한하여 행해짐
南北村便射 (남북촌편사)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 큰길을 기준으로 남편에 거주하는 사원은 남촌편, 북편에 거주하는 사원은 북촌편
兒童便射 (아동편사)	한 동리씩 아동으로 편을 짜서 경기

편사놀이는 편을 짜서 활쏘기 경기를 하는 놀이로 터편사·골편사·장안편사·사랑편사·한량편사 등이 있었으며, 각각 갑·을·병 3등급으로 나누어 경기를 했다. 이 중 장안편사놀이는 도성 안이 한편이 되고 변두리 몇 개의 활터가 한편이 되어 경기를 하였다. 장안편사놀이의 활쏘기는 양편이 각기 일정한 수의 선수를 선정하고 각각의 선수가 세 순(1순은 다섯발)에서 다섯 순씩 쏘아 맞힌 화살의 총수를 합해서 승부를 짓는다. 또한 장안편사놀이때는 풍악과 창이 있어 활을 쏘는 사람 뒤에 두세 사람씩 나란히 서서 병창을 하며 활쏘는 사람들의 흥취를 돋군다.

그러나 장안편사놀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²⁷⁾ 보유자 김경원(金慶原)이 2017년 10월 28일 사망 이후 보유자가 없는 상태이며, 황학정(黃鶴亭)이라는 공간의 전통성을 확보하

26) 이중화편, 『조선의 궁술(弓術)』, 조선궁술연구회, 1929.

27) 박나현, 「장안편사(長安便射)놀이의 전승실태 및 과제」, 『동양고전연구』79, 2020, 229-256쪽.

지 못한채 단편적인 전승과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승을 위한 강습, 시연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형대로 재현되지 않고 있다.

2) 인천 편사놀이

인천의 편사 놀이 역사는 인천 시내 사정의 역사와 무관할 수 없다.²⁸⁾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오래된 사정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에 자리 잡고 있는 무덕정으로, 1850년에 설립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사정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인천 전통 편사 놀이는 적어도 19세기부터 행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문기사에 인천 편사도 소개하고 있다. 1918년 부천군 문학면 후곡리 산상 편사에 3천 여명의 관중이 몰려들었다. 그런데 부랑자들이 술을 마시고 싸움이 심해지자 순사가 편사를 중지를 요청하였고, 양 사정은 1년만에 모여 승부를 가르고 있는데 편사를 중지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다음에 다시 대회를 열기로 하였다.²⁹⁾ 이 기사는 두 사정이 매년 정기적으로 편사를 하였고, 축제 성격으로 즐겼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부터 인천 편사는 연중행사이자 단체전 운동경기 형식으로 실시되었다.³⁰⁾ 1921년 5월 29일에는 주안염전을 기준으로 동서 양 사정 각 20명의 한량이 3회전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였다.³¹⁾ 경기 결과 동쪽 사정이 승리하자 6월 5일 서쪽 사정이 복수전을 개최하기로 선언하였는데, 당시 편사에 수천명이 참가할 정도로 성황이루었다.

1921년에도 5월 18일에도 시내 우각리사장에서 개최하였으며, 개최 결과는 동군(東軍)이 승리하였다.³²⁾ 당시에 기공들의 지화자 소리가 함께 하여 한량들의 힘을 주었다. 대회는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저녁 7시에 끝났고, 관중이 1천 명에 달하였다. 1922년 7월 9일 일요일에 신화수리사장(新花水里射場)에서 인천부내(府內) 한량만으로 편을 짜서 경기를 진행하였다.³³⁾

1923년 4월 27일에는 인천 조선인으로 조직된 무예회(武藝會)를 중심으로 편사를 개최하였는데 관중이 수천명에 이르렀다. 이때 용동권번기생들이 관중들에게 무한한 흥미를 조장하였다. 오후 7시에 결승을 치루고 하였으나 시간이 없어서 경관의 제지로 부득이 결승전을 치루지 못하고 기존의 성적으로 평가하여 청(靑) 팀이 승리한 것으로 하였다.³⁴⁾

1924년 6월 29일 기사에는 인천 신화수리(新花水里) 해안에서 인천, 부천군 다주면(多朱面), 부천군 남동면 등 3개 편사로 나누어서 편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전 대회에서 인천 사정이 참패하여 현재 승리를 위해 연습중이라고 보도하였다.³⁵⁾ 언론에서도 편사는 늘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 정연학외, 『南壽亭 100년사』, 대한궁도협회 남수정·인천문화재단, 2024.

29) 每日申報 1918.6.7. 책제목 : 인천의 便射會, 순사가 중지를 시켰다.

30) 동아일보 1921.6.1. 인천편사대회성황; 조선일보 1921.6.1. 인천편사대회성황; 동아일보 1922.7.12. 인천에 편사대회; 조선일보 1923.5.31. 무예대회편사성황; 조선일보 1924.6.28. 인천의 편사.

31) 동아일보 1921.6.1. 인천편사대회성황.

32) 조선일보 1921.6.1. 인천편사성황.

33) 동아일보 1922.7.12. 인천에 편사대회.

34) 조선일보 1923.5.31. 무예대회편사성황.

35) 조선일보 1924.6.28. 인천의 편사.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인천 편사놀이가 참여하였다. 1985년 9월 19~20일 이틀간 강릉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인천 편사놀이를 공연을 선보였다.³⁶⁾ 조선일보에서는 인천편사놀이를 ‘무예 겨루기놀이의 일종으로 양반층 한량들이나 병영의 군사들이 편을 갈라 활쏘기 내기를 한 다음 진쪽이 당일의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내용’ 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 사정의 응원이 불만하다고 하였다.³⁷⁾ 인천전통편사놀이는 2005년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인천의 대표로 참가해 장려상을 받았다.

사단법인 인천전통편사놀이보존회는 2005년 9월 7일 발족했다. 편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은 인천광역시를 포함하여 부천, 시흥 등지이고 활터간에 이루어지는 터편사에 속한다. 인천지역에서 성행하는 활축제인 편사는 연초에 편사를 하기로 협의된 두 곳의 활터가 번갈아 상대편 활터를 방문하여 활터간의 활쏘기 시합을 하는 방식이며, 편사가 성립되기 위해 편장을 정하고 상대편을 정하는 절차와 예법이 매우 엄격하게 진행된다. 인천편사는 남수정을 근간으로 주로 소래정, 구월정 편사를 진행하였다. 경기 종목 및 방식은 아래와 같다.

- 경기종목 : 145미터의 과녁(가로 2m, 높이 2m 67cm) 맞추기
- 경기방식 : 3순(5발, 1순) 경기
- 출전선수 : 두 개활터(2편), 각 편당 약 30~40여명
- 경기횟수 : 2회, 각 편의 활터에서 시합(홈앤드 어웨이 방식)
- 편사가 이루어지는 지역 : 인천 및 서부경기 일부지역

36) 경향신문 1985.9.18. 민속예술경연대회 개막 19, 20일 이틀간 강릉서 열려. 전국 18개시도 21개팀 참가. 편사놀이 등 11종목 첫선.

조선일보 1985.9.19. 인천 편사놀이 등 11개 종목 발굴 초연(初演).

37) 경향신문 1985.9.23. 농악, 민요 수준 높아졌다.

5. 부천활박물관 소장품 문화유산 가치

부천활박물관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故김장환(金章煥, 1909~1984) 공장³⁸⁾을 비롯해 故장진섭(1919-1996) 공장, 故김박영(1929-2011) 공장, 故유영기(1936-2023) 시장 등 보유자 궁시장의 제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다른 박물관에서 볼 수 없고, 부천활박물관의 정체성에 부합되게 소장하게 된 것이다.

<표 5> 부천활박물관 궁시장 소장품

궁시장	소장품	특징
故김장환	전통1	'正心正己'와 '非丁非八'이라는 사법(射法), 부천 성무정이라는 문구
	전통2	수렵도를 그린 종이 부착, 경기도 소사 김장환
	전통3	소사 김장환
	각궁1	41.5X36.0cm
	각궁2	37.0X35.0cm
	각궁3	38.0X39.0cm
	각궁4	14.9X20.8cm
	각궁5	39.0X40.0cm
	숫깍지	3.0X5.2cm. 손가락 보호
	암깍지	3.0X4.5cm. 손가락 보호
	완대	7.0X10.0cm. 소매정리용
	삼지	10.0X2.0cm. 손가락 땀 제거
	사련칼(대)	20.0X14.5X3.0cm. 활채 각 부분에 풀이 잘 묻도록 갈금 내는 칼
	짜끼	25.0X9.5X4.0cm. 활 재료 깎고 다듬는 도구
	환	36.5X3.5X7.0cm. 재료를 연마하고 깎는 도구. 가장 많이 사용 도구
	조선툽	71.0X28.0X3.5cm. 물소 뿔, 나무재료
	조막손	20.2X4.5cm. 줄로 묶어 고정. 소리손
	도지개	32.0X3.2cm. 완성된 활의 모양과 균형
	궁창	94.5X27.3cm. 재료를 바로잡거나 켄 때
	기타	소심줄 민어부레 화피(벗나무껍질) 대림목(참나무), 상목(뽕나무), 대소(대나무), 물소뿔(풀칠), 물소뿔(사련)
故장진섭	각궁	복합궁, 단궁
故유영기	화살12	조선시대 적진(敵陣)에 격서(檄書)를 보낼 때 사용
	화살11	조선시대 유엽전
	화살10	임금 거동할 때 선전관을 시켜 각 부대에 군령을 전하는 용도
	화살9	조선시대 습사 혹은 수렵용 화살
	화살8	조선시대 궁중 의식용 화살. 검게 옷칠
	화살7	평깃과 사능형촉이 달린 조선시대 화살
	화살4	의례용 박두 화살
	화살3	습사용 박두 화살
	화살2	유엽전
	화살1	모구놀이(모구놀이)에 사용된 조선시대 무촉 화살
	가야 화살	경남 양산 부부총 출토 가야 화살(7점)
	신라 화살	청동, 유엽형, 도끼날형촉 등 5점
	백제 화살	긴목형촉, 가오리형촉 등 10점
	고구려화살	끝형촉, 철제 도끼날촉 등 7점
통일신라	유엽형장철촉, 과(戈)형촉 등 4점	
故김박영	목궁(고궁)	회목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했던 전통 활의 재현품
	각궁	복합궁, 단궁(3점)
	정량궁	조선시대 무과 시험인 초시, 복시에 사용, 육량궁(六兩弓)
	예궁	조선시대의 궁중 잔치, 성균관 대사례, 지방의 향사례 등 사용

38) 박재광, 「궁시장 김장환 기증유물의 문화유산적 평가」, 고 김장환 선생 서거 40주기 학술세미나, 2024.11.14., 부천활박물관, 28-35쪽.

박물관의 기능 중 하나는 유물수집과 관리, 보존하는 일이다. 여기에 박물관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유물의 국가 및 지자체 지정에도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이것은 박물관의 존폐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며, 국가와 지자체도 보호할 의무가 주어진다.

국가유산청은 2024년 9월 15일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023.9.14. 제정)에 따라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관리가 가능한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대의 우리 사회와 문화를 대표하며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예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부천박물관 소장품도 충분히 예비 문화유산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된다면,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문화유산 신청서는 ①유물개요 ②유물 주요 내용 및 특징 ③유물 보존상태 ④유물의 가치 등으로 정리한다.

예시)	
1. 유물 개요	: 유물의 정의, 연혁 등
2. 유물 주요 내용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사용) 목적과 내용(인물, 사건, 이야기 등) - 제작자(사용자) 정보 - 유물 관련 조직 구성 정보(단체, 협회 등) - 유물 관리 공간 정보(시설물, 문화유산, 구역 등) - 유물의 활용 현황(전시, 아카이브, 책자 발간 등)
3. 유물 보존상태	
4. 유물의 가치(원형유지 및 희소성, 주제성, 공간성, 대중성, 활용성 등)	
* 신청 유물 중 수기 기록물·표현물의 경우, 해당 기록·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포함	

심사기준은 유물의 주제성, 공간성, 대중성, 활용성 등이며, 현장심사(90점)와 대국민 투표(10점)를 통해 상급(최우수, 우수, 장려)을 가리게 된다.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6> ‘예비문화유산’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내용
주제성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만한 특정의 이야기, 사건, 인물이 담겨 있는가? ○장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만한 가치가 높은가?
공간성	○해당 동산의 이력과 특징이 결부되어 있는 역사적 공간이 존재하는가? ○현재 해당 동산이 보존, 전시, 활용되고 있는 시설이 존재하는가?
대중성	○예비문화유산 선정 시, 사회적 갈등 요인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가? ○해당 동산의 활용의지를 가진 조직구성이 존재하는가?
활용성	○콘텐츠 및 지식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는가? ○지역관광자원과의 접목 가능성 및 파급력 정도가 우수한가?

2025 부천박물관 인문학 특강

—
**활쏘기 문화의
전승과 활용**
: 지역에서 세계로
—



발제 1

**궁시장(弓矢匠)과 활문화의
문화유산 가치**

토론자 **김기훈**
前육군박물관장

「궁시장(弓矢匠)과 활문화의 문화유산 가치」

김기훈 (전 육군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연학 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해 토론을 맡게 된 김기훈입니다. 먼저 발표자께서 궁시장과 활문화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폭넓게 조망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발표는 활과 궁시장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나아가 그 전승 환경과 제도적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학문적 기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에서 발표문이 제공하는 정보의 의미와 보완 제안을 먼저 말씀드린 뒤,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문화유산 목록 정리의 의의와 보완 제안

발표자는 국가유산청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궁시장 현황과 더불어 활쏘기 관련 문화유산-사정, 시지, 사포계 문서-의 등록 현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목록화 작업은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유산 연구에서 목록화는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특히 활 문화와 같이 지역별·시대별로 다양한 전승 양상을 보이는 분야에서는 목록 정리가 곧 연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발표자가 수행한 정리는 후속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은 몇 가지 사례가 있어 이를 추가한다면 목록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 1) 국가민속문화재 제35호 「각궁」: 고종 황제가 사용한 활, 1976년 지정, 육군박물관 소장
- 2) 국가무형유산 제93호 전통장(箭筒匠) 김동학: 1989년 지정
- 3) 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김제 홍심정 소장 유물 1건 3점 (先生案·射案·試紙): 2023년 지정
- 4)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정조 어사고풍(1792)」 8점 : 2024년 지정, 육군박물관 소장

이러한 사례들이 포함된다면 발표자의 목록은 더욱 체계적이고 풍부한 문화유산 지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국공계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사정이나 활쏘기 관련 자료들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 지정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며,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발표자의 지적은 매우 타당합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국공계가 경청해야 할 비판이라 생각합니다.

2. 궁시장 전승 환경 문제의 원인

궁시장은 이미 국가급 혹은 지자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자가 지적했듯이 경제적 곤란, 고령화, 후계자 양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전승 기반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이는 제도적 지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전통 궁시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낮다는 지적은 현장의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궁도협회는 5단 이상 궁사에게 전통 각궁과 죽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승단(昇段) 열기가 높아지면서 숙련 궁사들의 전통 궁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 결과 궁시장들이 주문을 제때 소화하지 못해 대기 기간이 길어졌다는 사례도 보고됩니다.

대한궁도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공인 각궁 업체는 37곳, 죽시 업체는 11곳이며, 그 중 2024년 한해에 새로 공인한 각궁 업체가 8곳, 죽시 업체가 1곳으로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승의 어려움이 단순히 수요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제작 과정의 난이도, 대한궁도협회의 가격 통제, 전통 기술의 원형 유지 요구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후계 양성의 어려움은 단순히 시장의 위축 때문이 아니라, 제도와 기술 전승 방식의 구조적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3. 부천활박물관 소장품 관련 논의

발표문은 부천활박물관 소장품을 ‘예비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박물관 소장품을 단순히 전시 자료가 아니라, 제도적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24년 부천활박물관 세미나에서는 고 김장환 보유자의 기증품을 중심으로 ‘등록문화유산’ 등재 신청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반면 이번 발표는 포괄적으로 ‘예비문화유산’으로

서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두 판단이 갈린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유명기 선생의 기증품은 대부분 복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가 인정한 공시장이 제작한 복제품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복제품의 문화유산 등재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4. 편사 관련 논의와 질문

발표문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편사에 대한 소개와 분석이었습니다. 국궁 역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민속학자의 관점에서 편사를 다루었다는 점은 그 자체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듯이 편사는 활쏘기 대회가 국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진행됨으로써 경기성과 오락성이 결합된 종합예술이었고, 현대 궁도의 원형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성행하여 일제강점기 동안 크게 유행하였고, 일제 말기인 1940년대 이후부터 활쏘기 대회에서 창악 부분이 생략된 채 경기성 중심의 현대 궁도대회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인천·부천 지역에서는 편사의 전승 흔적이 남아 있으며, 서울은 ‘장안편사’로 복원되어 무형문화유산이 되었고, ‘인천 편사’는 아직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장안편사의 전승 현황 평가

발표자는 장안편사 소개 말미에 전승 체계 및 현황의 미흡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켜본 현장에서는 장안 편사 보존회가 서울 사정들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매년 사정들을 번갈아 가며 편사의 핵심 요소인 창악과 활쏘기를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비교적 원만하게 행사를 이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급격하게 변화된 서울의 활쏘기 환경에 비교적 잘 대처하며 안정된 전승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정 시기를 관찰한 논문을 토대로 장안편사의 전승 현황을 일괄적으로 판단한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통 문화를 지켜나가는 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인천편사의 문화유산 등록 지연 문제

인천편사는 오래된 터편사 전통을 갖고 있음에도 아직 지역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장안편사와 비교할 때 불공평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문화유산 행정을 오랫동안 경험해 오신 발표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며 어떤 해결책을 제안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무형유산 ‘활쏘기’ 범주 확대 가능성

2020년 국가무형유산 지정 당시 ‘활쏘기’는 ‘보사 중심’의 현대 궁도를 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사(騎射)가 제외 되었고, 편사 놀이도 아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편사를 활쏘기 문화유산의 범주에서 제외한 것은 한국 활쏘기 문화의 풍부함을 스스로 축소시킨 편협한 문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활쏘기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려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면, 이 문제는 더욱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지정된 무형유산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발표자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궁시장과 활문화, 그리고 편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자료를 종합하며 많은 시사점과 다양한 과제를 제시해 주신 발표자에 감사드립니다.

2025 부천박물관 인문학 특강

—
**활쏘기 문화의
전승과 활용**
: 지역에서 세계로
—



발제 2

'살아있는 유산'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 : 지역-무형문화유산-박물관의 접속

발제자 **조성실**

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살아있는 유산’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 지역-무형문화유산-박물관의 접속」

조성실 (전북대학교)

1. 들어가는 글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을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으로 표현한다. 이는 줄곧 비교의 대상이 되는 유형문화유산을 ‘죽은 것’으로 대립 설정하려는 가치판단이 아니다. 여기서 핵심은 행위와 실천의 유무인데, 무형문화유산은 특정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과 감각, 기술과 기억의 연쇄를 통해 수행될 때 그 존재가 의미를 얻는다. 이 수행이 중단된다면 무형유산은 유형유산처럼 보존의 대상으로 남지 않고 소멸하고 말 것이다. ‘살아있는’이라는 표현은 바로 행위를 통해 지속적인 전승이 요구되는 무형유산의 속성을 가리킨다. 그런 점에서 ‘살아있는’ 무형문화유산은 모든 이들의 생활방식과 그 배후의 다양한 가치관이 응축된 문화의 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화 그 자체인 무형유산은 실행되지 않으면 사라지고, 실행하는 만큼 변주되며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무형유산의 가치와 의미는 수행의 밀도와 전승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조건들, 그리고 이를 재맥락화하고 재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끊임없이 갱신되는 특징을 지닌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현대 박물관 영역에서도 두드러지는 추세다. 과거 박물관은 주로 유형의 유물 중심으로 수집 및 전시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대다수 박물관은 그러하다)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 이후 문화유산 개념은 유형을 넘어 무형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재정의되었고, 2004년 서울 세계박물관대회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무형의 유산을 전시 콘텐츠로 수용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살아있는 유산’의 생동감을 전시로 구현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무형문화유산은 지역 공동체에 의해 전승되고 실천되는 살아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과거의 유형적 산물만을 제시하는 기존 전시 방식으로는 그 가치와 맥락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발표는 무형문화유산 전시기획과 연구에 참여했던 필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무형문화유산 전시의 방향성과 전망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포스트뮤지엄이라는 이론적 틀 속에서 무형문화유산 전시의 현재를 진단하고 지향점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박물관 간 새로운 접속 방안을 모색한다.

관계의 장에서 재조정한다. 에코뮤지엄이 장소성과 참여, 지역 지식의 재가동을 통해 보존과 실천의 프레임을 제도화하고, 신박물관학이 객체 중심에서 관계 및 협력 중심으로 전환되는 이론을 중심에 두는 것과 같이 포스트뮤지엄 담론도 맥을 같이 한다.

포스트뮤지엄 개념을 언급한 후퍼-그린힐은 이와 대비되는 대상으로서 모더니스트 뮤지엄(modernist museum)이 19세기에 등장하여 20세기 초 정점에 달했으며 박물관 관람객은 정보가 부족하고 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되었음을 지적하며 포스트뮤지엄 시대에 관람객 의미는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포스트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과정’과 ‘경험’이 보다 중시되어야 하며 유물의 대량 수집과 축적에서 벗어나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³⁾ 포스트뮤지엄에서 문화 재조직은 무엇이 지식으로 간주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다. 이는 박물관과 관람자 간의 관계를 재협상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이다. 박물관 전시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가, 또는 누가 발화하고 있으며 어떻게 발화하는가가 분석의 주요한 대상이 되는 것이다. 포스트뮤지엄에서는 전문적 지식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관람객 혹은 비전문가의 일상적 경험에 기반한 지식과 통합된다. 근대주의적 박물관이 사실적 정보를 전달했다면, 포스트뮤지엄은 관람자의 감정과 상상력을 함께 참여시키려 시도한다. 후퍼그린힐은 그의 논저를 통해 “박물관 대규모 수집의 시대는 끝났다. 포스트뮤지엄은 오브제를 보유하고 관리하되, 더 이상의 축적보다는 그것의 활용에 더 집중할 것이다. 포스트뮤지엄은 무형유산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특정 문화집단의 유형적 물질문화가 대부분 파괴된 경우, 그 문화의 과거와 미래를 구현하는 것은 기억, 노래, 그리고 문화적 전통이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전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며 공동체와 기관 간의 협업 구축과 그 공동체가 자신들의 방식으로 박물관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박물관을 둘러싼 지식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통일된 관점은 포스트뮤지엄 시대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견해와 관점, 경험 및 가치들이 여러 방면으로 발산되고 박물관의 목소리는 그들 중 하나가 될 뿐이다.⁴⁾

물론 포스트뮤지엄 관점으로 무형유산을 다루고자 할 때, 박물관이 여전히 감내해야 할 지식 생산에 대한 지속적 책임, 유형·무형 소장품 관리, 발화 기회를 공평하고 균등하게 보장해야 하는 문제 등등 관리자 입장에서 마주하게 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안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난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완벽한 해답은 없지만 민족지학적 컬렉션을 보유한 박물관들은 이미 다양한 공동체와 협력하여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실천적인 해결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 이러한 해결책들이 모여 박물관을 둘러싼 새로운 과정과 작동 방식을 형성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무형유산 전시의 맥락에서 포스트뮤지엄 논의는 특히 중요하다. 포스트뮤지엄은 소스 커뮤니티(source communities) 개념을 중시하는데, 전시의 원천이 되는 다양한 집단과 권력을 공유하고 전시의 의미 구성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⁵⁾ 이때 지식은 더

3) Eilean Hooper-Greenhill(2001), *Museums and the Interpretation of Visual Culture*, Routledge

4) Eilean Hooper-Greenhill(2001), *Museums and the Interpretation of Visual Culture*, Routledge

5) 조성실(2015), ‘무형문화유산 전시에서 소스 커뮤니티가 갖는 의미’, 『실천민속학연구』 25호

이상 단일한 권위로부터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와 전시 주체 간 상호 대화 속에서 구성된다. 관람객은 수동적 소비자로서 머물지 않고 전시에 의미를 부여하는 공동의 실천자로서 다성적(多聲的) 목소리를 내는 매개체로 기능하기도 한다.⁶⁾ 이처럼 무형유산 전시의 장은 전승자와 지역 공동체, 박물관, 그리고 관람객이 함께 지식을 구성하고 해석하는 상호적 장소로 재구성된다. 종합해 보면 무형유산 전시에서 포스트뮤지엄 개념은 권위의 분산, 공동체 참여, 지식의 다성성, 재현의 윤리와 정치, 그리고 감각적·수행적 학습 강화라는 여러 층위에서 구현된다.

3. 무형문화유산 전시 구조와 주체의 재편

박물관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의 해석을 관람객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구조를 통해 권위를 구축해 왔다. 오랫동안 ‘지식 전달’을 전제로 하는 형식을 취해오면서 관람객은 정보의 수신자로만 간주되었다. 일방향의 송신→수신 구조는 전시를 객관적 사실의 재현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었고, 박물관은 학문적 권위와 사회 규범을 시각적으로 정당화하는 제도로 기능했다. 그러나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운 박물관 담론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특히 무형문화유산이 전시의 주요 영역으로 등장하면서 일방향 구조는 근본적인 균열을 맞이하게 되었다. 무형문화유산은 살아있는 관계와 실천을 통해 존재하는 문화적 과정이기에 전시의 형식 자체가 유산의 속성에 맞게 변형되어야 한다. 필자는 전시기획자이자 연구자로 참여했던 한 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무형유산 전시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자세한 내용은 ‘무형문화유산 전시의 분석과 방향’이라는 논고에 나와있는데,⁷⁾ 이 지면에서 짧게나마 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012년 10월 26일부터 한 달 동안 전주한옥마을 내 전북대 예술진흥관에서 <장인, 생애사와 전통 지식> 기획전이 개최되었다. 이 전시는 인류학자인 5인의 기획자가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공예 장인들과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으며 악기장, 모필장, 자수장, 선자장, 짚풀공예 장인이 전시기획에 참여했다. 필자는 전시기획 과정에서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주제 특히 공예 부분에 관심을 두고 관련 전시회를 사전답사하였는데 대부분 전시가 장인이 만들어 낸 결과물인 공예품을 관람객에게 선보이는 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과물은 그것을 제작한 이와 과정 없이 존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전통 지식은 장인의 감각과 기술이 응집된 것으로 생애사적 배경 속에서 구축된다. 이것은 우리가 기획한 전시가 장인들의 생애사에 주목한 이유다. 전시는 테마별로 각 기획자의 개성에 맞게 자유롭게 구성되었으나 전체적으로 합의한 바는 ‘완성된’ 공예작품을 선보이지는 말자는 것이었다. 이 의도적 배제는 유형적 오브제를 전시의 중심에 두는 것을 지양하고 장인이 가진 전통공예 기술의 무형적 가치를 재현하는 것에 주력하고자 했던 기획자들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전시를 준비하는 몇 개월 동안 장인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과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두었고 이 자료는 전시장에서 콘텐츠로 활용되었다.

6) 조성실(2022), ‘무형문화유산 전시의 분석과 방향:전통공예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박물관학보』 43호

7) 조성실(2022), ‘무형문화유산 전시의 분석과 방향:전통공예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박물관학보』 43호

해당 사례는 ‘무형문화유산 전시의 분석과 방향’이라는 논고를 통해 필자가 보다 세세하게 분석한 바 있는데, 이 논문은 무형유산 전시가 정보전달 공간에서 경험적 관계의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밝히고 박물관에서의 전시가 단선적 해석을 제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의미를 생성하는 상호 담론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다방향 네트워크로의 재편은 박물관이 전승자와 연구자, 지역주민, 관람객 등이 함께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협력적 공간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한다. 포스트뮤지엄적 전환은 무형문화유산 전시를 실행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부채 균형을 잡아주는 그...
부채 삼시랑이라 그러.
인자 우리 노인 양반들은 옛날에,
그 우리 전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채 삼시랑이다’ 그랬어.

삼시랑이 편고 하니 조물주야 조물주,
애기 낳을 때 삼신, 그러니까 부채의 균형을
그대로 잡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염소 발목 털은
빛이 잘 안 나간다고 해야할까?
꺼끌꺼끌하고 끝이 좀 안 좋아.
탄력이 있으면서 붙는 맛이 있어야 하거든?
그래서 그것은 속에 넣는 털로 좋아.

그 다음에 허벅지 털 같은 것은 싸구려 붓.
숫자 늘리려고 속에다 많이 넣고,
수염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액자붓을 많이 썼고.”

[그림 1] 장인의 구술사를 활용한 <장인, 생애사와 전통 지식> 홍보물

그렇다면 이 전시 구조 재편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필자는 소스 커뮤니티 개념을 한 번 더 언급하고자 한다. ‘소스 커뮤니티(source community)’는 현대 박물관 운영 전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화두이자, 이를 활용한 전시기획은 전통적인 박물관과 신박물관을 구별 짓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소스 커뮤니티란 제국주의 시기 서구 박물관에서 수집한 유물을 원래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 모두를 일컫는 용어다. 주로 북미의 박물관이 미국과 태평양 연안의 토착민들을 언급할 때 사용하던 것이나 현재는 박물관이 다루는 모든 문화적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한다.⁸⁾ 필자가 기획한 장인 전시에서 함께 협업한 장인 집단이 바로 소스 커뮤니티라 할 수 있다. 국내 박물관에서 소스 커뮤니티와의 협업을 강조하며 본격적으로 이를 홍보했던 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아리랑’특별전이 처음이다.⁹⁾ 이 전시는 민요의 ‘국가유산화’ 서사에서 벗어나 실제 전승 공동체 참여를 통해 다층적 해석을 구현했다.

과거에는 큐레이터가 해석의 주체이자 지식의 통제자로 존재했다면, 새로운 박물관 패러다임이 등장한 이후 전시의 의미는 협상과 대화, 그리고 다성적 해석의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특히 소스 커뮤니티의 목소리, 대부분은 전시에서 구술사 재현을 통해 등장하는 그 목소리는 박물관 내 권력의 분산을 실현하는 방식의 하나로 작동한다. 구술 텍스트 활용은 전시의 해석

8) 조성실(2016), ‘소스 커뮤니티 관점에서의 박물관 전시와 쟁점들’, 『예술경영연구』 38집 (Peers and Brown, 2003 재인용)
9) 그러나 필자는 2008년 ‘전북 민속 문화의 해’ 일환으로 진행된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만들어 온 땅과 삶: 호남평야 농부 김씨의 한평생>을 첫 번째 소스 커뮤니티 협업 사례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시 보도자료를 비롯한 그 어떤 홍보물에도 이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았고 무형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전시도 아니었기에 본고에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2015년 『구술사연구』에 발표한 ‘구술사를 활용한 민속전시 연구’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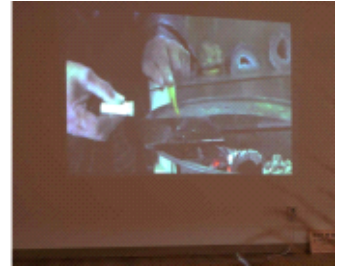
적 주체로서 증언자의 ‘제1목소리’를 전면에 드러낸다.¹⁰⁾ 큐레이터는 더 이상 이야기를 ‘대표’하지 않으며 구술자인 무형유산의 전승 주체들은 자신의 삶을 직접 말하고 그 발화가 전시의 중심을 구성하게 된다. 소스 커뮤니티의 개입은 박물관의 해석 독점 체계를 해체하고 지식 생산의 민주화를 야기한다. 전시의 주체가 다층화되면서 박물관 전시에 관여하게 되는 다양한 주체는 복합적 관계망으로 재구성된다.



[그림 2] 전시 준비 장면
모필장이 수집해 온 붓 재료



[그림 3] 장인 전시 중 모필장의 ‘염소 이야기’ 부분
전시는 대부분 모필장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구성되었다.



4. 수행적 전시와 지식의 현현

장인 전시는 완성된 유물(공예품)보다는 장인이 기술을 수행하는 과정 즉 손의 움직임, 재료의 변형, 시간의 흐름 등을 기록 영상과 실연으로 제시함으로써 지식이 행위로 드러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잉게 다니엘스가 그의 논저에서 수행적 지식·체화된 지식을 전달하는 전시라 일컬은 이러한 형태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지식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공동으로 체험하게 한다.¹¹⁾ 이 장에서 소개하고 싶은 또 하나의 전시는 일본 국립과학박물관에서 진행했던 ‘와쇼쿠(和食) 특별전’이다. 와쇼쿠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 전시회는 도쿄와 쓰루오카를 비롯한 일본 전역에서 3년 동안 순회하는 것으로 기획되어 지금도 전시 중이다. 필자가 관심 갖는 전시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된 쓰루오카에서 개최된 것이다. 도쿄에서 열린 와쇼쿠 특별전이 국가 브랜드로서 일본식 식문화를 과학, 역사, 기술의 서사로 구조화한 반면 쓰루오카 아트포럼 전시는 지역민이 직접 요리 과정을 시연하고 지역에서 나는 음식의 재료, 향, 이야기등을 매개로 관람자와 상호작용하는 구조를 취했다. 관람객을 참여자로 끌어들이는 수행적 전시로서 지식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시장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보여준다.¹²⁾

10) Amareswar Galla(2008)가 ‘The First Voice in Heritage Conservation’(『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3)에서 언급한 ‘제1목소리(first voice)’는 ‘문화유산의 실제 전승자와 관리자들, 그들이 가진 유산자원의 목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서로 다른 문화 간 대화에 영향을 주는 참여 민주주의를 지향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민속의 실제 향유자들인 민중의 목소리 그대로를 재현하는 방식은 전시가 큐레이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가 아닌 소스 커뮤니티의 삶을 여과 없이 나타내고자 하는 장임을 보여준다.

11) Inge Daniels(2020), What are Exhibitions for? An Anthropological Approach, Bloomsbury USA Academic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에서 무언가를 생성하는 것으로 변모하면서 무형문화유산 전시는 과거의 흔적을 재현하거나 전통의 지속을 표상하는 데서 머물지 않는다. 무형유산 전시 현장은 지식과 실천이 다시 발생하는 지대가 된다. 전시란 언제나 보여주기 형태를 취했으며 박물관은 오랫동안 문화의 시각적 증거를 수집하고 체계화하며 제시하는 공간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무형유산 전시가 그러한 구조 속에 안착한다면 ‘살아있는’ 그 속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 무형유산은 박물관의 정지된 시간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의 행위와 관계를 통해 현재화되어야 한다.



[그림 4] 와쇼쿠 특별전시장 내부. 식재료와 도구, 음식에 담긴 가치관 등을 설명하는 데 공간을 상당히 할애한다.

와쇼쿠 전시를 통해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또 한 가지는 인간과 비인간(자연) 사이의 공생관계이다. 무형유산 전시에서의 수행성은 인간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많은 경우, 무형문화유산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생태적 관계를 통해 유지·전승된다. 최근 문화와 자연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본 내 자연사박물관 전시가 눈에 띄는데 국립과학박물관에서 열린 와쇼쿠 전시도 그 한 사례이고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내방신: 가면·가장의 신들(來訪神: 仮面・仮装の神々)’중 하나인 보제(ボゼ) 가면을 전시하고 있는 가고시마현의 자연사박물관들도 마찬가지이다.

생물-문화 관계를 무형유산 측면에서 연구한 호엑스트라는 신기술과 경제 구조로 인해 전통 지식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생물문화다양성이 매우 유망한 분야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무형유산 분야는 생물다양성 지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유산과 무형유산은 깊은 관련을 맺으며 무형유산은 자연과 문화의 중재자로서 자연 작용에 대한 지식이 유물 제작과 연결되는 방식을 보여준다고 언급하고 있다.¹²⁾ 가고시마의 여러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 보제는 아쿠세키섬에 전승되고 있는 내방신 가면의 한 형태로서 제작에 필요한 재료는 지역의 식생과 큰 연관이 있어 자연유산과 무형유산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예시라 할 수 있다.

보제 가면이 등장하는 내방신 의식은 가고시마현립박물관, 가고시마현 역사문화센터 여명관 민속실, 도시마촌 역사민속자료관 등 가고시마현의 여러 박물관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12) 조성실 외(2025), ‘공동체적 실천으로서 무형문화유산의 현대적 해석과 전시 전략’, 『실천민속학연구』 45

13) Daan Hoekstra(2010), ‘프레스코: 알라모스의 생물다양성 보존과 문화다양성 보존 간의 연관성을 규명할 열쇠로서의 무형유산’, 『국제저널 무형유산』 5

무형문화유산이다. 자연사 중심의 전시에 주력하던 가고시마현립박물관이 2018년 3층 상설전시실을 개선하면서 새로운 전시 테마를 설치했는데 그중 내방신 의식 클라이맥스에 등장하는 가면신 보제를 전시장에 선보였다. 보제 가면은 가고시마의 아쿠세키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을 이용하여 제작되고 개체 수 변화에 따라 그 재료와 형태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가고시마현립박물관은 이러한 전시재현을 통해 해당 문화유산이 지역의 식물자원과 연관됨을 강조한다. 내방신 의식은 무형유산으로 분류되지만, 가면 제작에 이용되는 비로야자, 후박나무, 종려나무, 류큐대나무 등 자연식생이 내방신 의식을 중요한 정신문화로 계승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¹⁴⁾



[그림 5] 가고시마현 여러 박물관에 전시되어있는 가면신 보제

와쇼쿠 특별전시와 마찬가지로 가고시마현의 박물관들도 지역의 화산지형과 해류, 기후 조건이 지역민의 문화와 기술 전승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의 서사를 전시로써 엮어낸다. 전시는 생태 환경을 문화 기억의 기반으로 제시하면서 인간과 비인간의 공진화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며 자연과 인간이 서로의 지식을 형성하는 상호관계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부천활박물관은 무형문화유산에 있어서 기술과 생태 지식의 접목 구조를 보여주는 데 적합한 국내 사례이다. 이 박물관은 국가무형문화재 공시장 고 김장환 선생의 삶과 기술을 전시의 서사로 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활을 구성하는 대나무, 참나무, 힘줄, 민어부레풀 등 각각이 물질적 생명성을 지닌 존재로 등장하고 장인은 그 재료들의 시간과 리듬을 읽는 존재로 제시된다. 무형유산을 생태적 지식의 체계로 재해석한 전시는 기술이 인간의 손끝에서 발생하지만 그 근원은 자연과의 상호작용에 있음을 드러내준다. 부천활박물관 전시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수행하는 생태 지식 구조를 드러내는 장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14) 조성실(2024), '생물문화다양성 보존을 위한 지역 자연사박물관의 역할과 방향', 『박물관학보』 47

5. 나오는 글

전시의 주체가 다중화되면서 박물관은 더 이상 독점 담론의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서사가 교차하는 협업의 무대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무형문화유산 전시에서 완성된 결과물보다는 협의와 조정, 참여의 과정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전승되는 관계적 산물로서 문화유산의 속성이 두드러진다. 앞에서 강조하였듯 소스 커뮤니티, 즉 무형유산의 실제 전승·향유자들은 이러한 협업 전시의 핵심 주체이다. 필자가 사례로서 공유했던 전시들은 대부분 유물 중심 서사에서 탈피하여 전승 공동체들의 목소리를 전시 중심에 배치하고 전시의 내러티브 구조를 재편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전시 방식이 늘 모범답안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전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권력 구조가 형성될 위험도 있고, ‘참여’라는 외양 아래 여전히 기획자 중심의 권위가 재생산될 수도 있다. 진정한 협업은 공동체의 목소리를 전시로써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시 행위 자체를 제도 속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박물관과 공동체와의 협업은 여러 과제가 뒤따른다. 협업이 형식적 참여로만 전락하지 않게 하기위해서 공동체의 주체적 해석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박물관은 지식 생산의 불균형을 인식하고 조정하는 메타-행위자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본 발표는 무형문화유산 전시를 포스트뮤지엄이라는 이론 하에 수행성, 관계, 생태 지식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무형유산 전시는 행위와 감각, 공동체 실천 속에서 ‘살아있는’ 지식의 현현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박물관은 문화적 실천을 활성화하는 생태적 플랫폼으로서 기능전환을 꾀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전시, 특히 공예전시는 기술의 결과보다 과정 중심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때 핵심은 완성된 물건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재료와 장인의 상호작용, (부천활박물관의 경우) 즉 대나무의 결, 물푸레나무의 습도, 아교의 점성 등 자연적 조건과 인간 감각의 공진화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활박물관의 전시는 소스 커뮤니티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활의 제작과 사용은 궁시장 한 개인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적어도 과거에는) 지역 커뮤니티를 둘러싼 장인 집단, 혹은 동호회, 지역학교 등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진다. 박물관은 전시 주체를 전문가 집단에서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하고 협업 전시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활박물관은 장인의 생태 지식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가 가능한데 활 제작은 자연 재료의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고 이는 곧 자연을 지식의 공동 창조자로 인식하는 관점으로 이어지게 한다. 활박물관 전시는 자연과 계절의 순환, 인간의 기술이 얽혀 형성하는 생물문화다양성의 현장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이상의 것들이 실현될 때 무형문화유산은 박물관 공간 안에서 ‘살아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유네스코,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해설집: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한국어판)
- 조성실(2015), '무형문화유산 전시에서 소스 커뮤니티가 갖는 의미', 『실천민속학연구』 25
- _____(2016), '소스 커뮤니티 관점에서의 박물관 전시와 쟁점들', 『예술경영연구』 38
- _____(2022), '무형문화유산 전시의 분석과 방향: 전통공예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박물관학보』 43
- _____(2024), '생물문화다양성 보존을 위한 지역 자연사박물관의 역할과 방향', 『박물관학보』 47
- 조성실 외(2025), '공동체적 실천으로서 무형문화유산의 현대적 해석과 전시 전략', 『실천민속학연구』 45
- Amareswar Galla(2008), 'The First Voice in Heritage Conservation', 『국제저널 무형유산』 3
- Daan Hoekstra(2010), '프레스코: 알라모스의 생물다양성 보존과 문화다양성 보존 간의 연관성을 규명할 열쇠로서의 무형유산', 『국제저널 무형유산』 5
- Eilean Hooper-Greenhill(2001), *Museums and the Interpretation of Visual Culture*, Routledge
- Inge Daniels(2020), *What are Exhibitions for? An Anthropological Approach*, Bloomsbury USA Academic
- Marilena Alivizatou(2008), '유산 연구와 박물관학에서의 무형문화유산의 맥락화', 『국제저널 무형유산』 3

2025 부천박물관 인문학 특강

—
**활쏘기 문화의
전승과 활용**
: 지역에서 세계로
—



발제 2

'살아있는 유산'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 : 지역-무형문화유산-박물관의 접속

토론자 **배은석**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살아있는 유산’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 지역-무형문화유산-박물관의 접속」

배은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본 발표는 무형문화유산 전시기획과 연구에 참여했던 필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무형문화유산 전시의 방향성과 전망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포스트뮤지엄이라는 이론적 틀 속에서 무형문화유산 전시의 현재를 진단하고 지향점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박물관 간 새로운 접속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의 주장에 근거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살아 있는 유산을 전시하기 위해서 “해석의 권위를 재배치하는 것이다. 전문가에서 대중으로 향하는 단방향성이 아니라 공동체와 무형유산 전승자, 전시의 기획자, 그리고 방문객이 전시를 해석하고 기억하는 실천 행위를 교차로 바라보아야 한다. 여기서 박물관은 최종 해석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해석을 조정하고 협상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부천활박물관의 경우 이러한 해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 “포스트뮤지엄은 소스 커뮤니티(source communities) 개념을 중시하는데, 전시의 원천이 되는 다양한 집단과 권력을 공유하고 전시의 의미 구성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¹⁾ 이때 지식은 더 이상 단일한 권위로부터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와 전시 주체 간 상호 대화 속에서 구성된다. 관람객은 수동적 소비자로 머물지 않고 전시에 의미를 부여하는 공동의 실천자로서 다성적(多聲的) 목소리를 내는 매개체로 기능하기도 한다.²⁾”고 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공연, 시연, 워크숍이 모두 전시의 일부분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형문화유산이 오늘날 세대의 삶에 중요한 일부가 되어 내일의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afeguarding은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과 재창조의 지속 및 전수를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적 전승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활박물관의 경우에 지역공동체와의 연결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매우 섬세한 추론의 과정을 접하면서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조성실(2015), ‘무형문화유산 전시에서 소스 커뮤니티가 갖는 의미’, 『실천민속학연구』 25호

2) 조성실(2022), ‘무형문화유산 전시의 분석과 방향:전통공예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박물관학보』 43호

2025 부천박물관 인문학 특강

—
**활쏘기 문화의
전승과 활용**
: 지역에서 세계로
—



발제 3

도시를 겨누다-부천시 활쏘기 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전략

발제자 조 소 연

동국대학교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도시를 겨누다-부천시 활쏘기 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 전략」

조소연(동국대학교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1. 들어가는 말

20세기 한국은 개항과 군주제의 종결, 일제강점기와 광복, 그리고 한국전쟁에 이르는 연속된 격변을 겪으며 정치적·사회적 기초가 여러 차례 재편되었다. 이후 한국 사회는 전후 복구와 산업화를 바탕으로 한 압축적 근대화, 정보통신혁명에 따른 사회구조의 재편, 그리고 대도시권 중심의 인구 집중 등의 변화를 단기간에 경험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이 빠르게 변형되었고 전통적 관습과 공동체적 실천은 전승 체계의 약화와 실천기반의 소실로 인해 단절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는 지역 공동체의 해체와 생계 중심 가치의 확산을 초래하며 전통문화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던 기반을 크게 약화시켰다. 무엇보다도 전승의 기반이 된 장소성의 변화는 이러한 단절을 가속화했다. 전통의 실천은 본래 특정한 물리적·사회적 장소성과 결부되어 있었다. 농촌의 마을 광장, 사찰이나 집의 마당 등은 전통 행위가 규범적으로 반복되는 환경을 제공했으나 도시화와 토지 이용의 변화는 이러한 전승 공간을 축소하거나 소멸시켰다. 반대로 현대 도시는 공원, 문화센터, 박물관, 축제장 등 새롭고 인공적인 공적 공간을 통해 전통을 재현하고 재배치한다. 이 전환은 전통 실천의 장소성을 변화시켜 행위의 의미와 수행 방식을 바꾸었다. 이처럼 전승 공간이 축소되자 전통을 전달하던 사람들과 공동체의 역할도 약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전승 방식에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다. 과거의 전승은 주로 가문·장인·지역 공동체 내부의 반복적 실천과 일상적 전수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전후 이러한 전승 주체들이 감소·소멸하면서 계승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전승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박물관과 문화원 등의 제도적 기관, 학교와 지역아동시설을 통한 교육적 전승 경로, 시민 동호회와 사회적 기업을 통한 민간 주도의 전승 방식이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적·민간적 전승 경로는 가정·지역의 구전, 현장 장인의 개인적 전수, 지역 제례와 축제, 그리고 제도적 보호 및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복원 노력과 결합하여 일부 전통이 명맥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재생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재생의 흐름은 전승의 안정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전승 주체의 분화로 인해 지식과 기술의 전달 방식이 표준화되거나 재구성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에 따라 전통은 개인적·공동체적 실천뿐 아니라 제도적·상업적 장치들을 통해 병행적으로 전승되며, 각 전승 주체가 놓인 맥락에 따라 전승의

내용과 의미가 달라지는 양상이 형성되었다. 결과적으로 전통의 재생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관광 자원화, 교육 콘텐츠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 현대적 맥락에 맞춘 변형을 수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통과 현대는 단순한 대립을 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재구성되는 양상으로 생활양식과 실천 공간, 제도적 틀, 그리고 문화적 인식이 새롭게 형성되는 문화적 조건을 만들어냈다. 본 발표의 주제인 ‘활쏘기’라는 전통문화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현대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계승되고 있다.

이 발표에서는 활쏘기의 계승 양상을 전통문화의 지속과 변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부천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적 계승과 활용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천시는 활박물관 운영,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도시 내 활터 공간의 보존 및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쏘기 문화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활쏘기를 도시문화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례는 활쏘기 문화가 단순한 전통의 보존을 넘어, 도시문화 콘텐츠로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에 이 발표에서는 활쏘기의 현대적 계승 양상을 분석하고, 지역 공동체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실천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활쏘기 문화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계승

활쏘기는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의 삶과 정신을 구성해 온 대표적인 전통의 실천 가운데 하나로 공동체적 규범과 신체적 수련, 그리고 의례적 상징성을 함께 지닌 문화적 행위였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사회 변화 속에서 활쏘기는 점차 일상에서 멀어졌고, 그 전승 방식과 실천 기반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전통 활쏘기는 원래 수렵 도구로 인간의 생존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출발했다. 이후 국가 형성과 전쟁의 맥락에서 활은 장거리 투사 무기로서 군사적·전략적 가치를 획득하며 공적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동시에 유교적 교양 체계 안에서는 활쏘기가 심신 수양과 인격의 표출 수단으로 해석되어 사대부의 수련과 예의 규범을 드러내는 행위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근대화 와 화기(火器)의 보급은 활의 군사적 효용을 빠르게 축소시켰다. 무기적 기능을 상실한 활쏘기는 전승의 사회적 기반과 실천 공간을 잃어 쇠퇴를 맞았다. 그러나 19세기 말·20세기 초에는 황학정과 같은 중심적 사정의 재건(1899), 궁술 단체의 조직화, 전국 규모의 대회와 관련 간행물의 등장으로 활쏘기의 근대적 재편성이 일어났다.¹⁾ 이 시기 활쏘기는 전통적 성격과 근대적 경기성, 놀이적 요소를 동시에 지닌 복합적 활동으로 재구성되었다. 일제 말기와 태평양전쟁,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활쏘기는 다시 침체를 겪었고, 전승 기술과 제작 장인의 명맥도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중반 이후 대한궁협회의 조직화와 전국대회 재개를 통해 제도적 기반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후 일부 전통 기술은 무형문화재 지정 등을 통해 보호되었고, 동시에 스포츠화·조직화 경향이 강해지며 경쟁 대회 중심의 활동이 자리 잡았다. 1970년대 이후에는 보존과 대중화가 병행되는 양상이 뚜렷해졌다. 궁시장 등 전통 기술의 무형문화재 지정²⁾은 제궁 기술의 계승을 도왔고, 개

1) 1920년대에는 전국 규모의 궁술대회 개최, 조선 궁술 연구회 발족(현 대한궁도협회), 종합 궁술 지도서 『朝鮮의 弓術』 발간 등 과 같은 국궁 근대화의 움직임이 계속되었다.

량공의 개발은 진입 장벽을 낮춰 활쏘기 참여층을 확장했다. 1990년대 지방자치와 생활체육 정책의 확산, 지역 축제와의 결합, 인터넷 기반 동호인 네트워크의 형성³⁾은 활쏘기를 지역사회 문화와 생활체육의 영역으로 이끌어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활쏘기는 단순한 기술 전승을 넘어 다양한 의미 층위를 획득했다. 무기로서의 효용은 사라졌지만 유·무형 자원의 결합을 통해 문화유산적 가치, 스포츠적 요소, 관광·교육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활쏘기는 전술한 서론의 전통문화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전통성과 현대적 재맥락화가 교차하는 다층적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제도적 변화 또한 활쏘기의 현대적 계승이 다층적 양상으로 전개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2003년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채택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발했다. 협약은 무형유산을 공동체의 관습·표현·지식·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과정으로 규정하고, 보유자 중심의 원형 보호를 넘어 전승 주체의 다양성, 생활 맥락, 그리고 재창조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 국제적 변화는 한국 내 법·제도의 재정비로 이어졌고, 2010년대의 법 개정과 2015년의 별도 법 제정(무형문화재법)⁴⁾은 유네스코 기준을 반영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법·제도상의 변화는 무형문화유산 범주의 확장으로 가시화되었다. 예능 중심의 정의에서 벗어나 구전전통·의례·생활관습·놀이·축제·전통지식·무예·공예기술 등으로 외연이 넓어졌고, 물적 대상뿐 아니라 문화공간과 사회적 행위 자체가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형’ 중심의 보호 원칙은 ‘전형’ 그리고 ‘활용·향유’ 중심으로 보완되었고, 지정·등록 중심의 보호 체계는 비지정 유산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전승 주체와 전승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유네스코 체제는 공동체와 개인, 다양한 사회집단을 전승 주체로 인정하면서 전승의 사회적 기반을 확장하고 참여 계층을 다양화했다. 이에 따라 국가·지자체의 지원과 제도적 보호는 생활자·동호인·단체·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행위자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되었고, 전승은 보존뿐 아니라 향유·진흥의 관점에서 강조되기 시작했다. 활쏘기 사례는 이러한 제도적 전환이 종목 단위의 지정·관리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준다. 활쏘기는 2020년 ‘보유자·보유단체 없이’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활쏘기 전승은 전국의 활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회원들과 활터에 가입하지 않고 활쏘기를 즐겨하는 생활체육인, 활쏘기 관련 단체를 별도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사람들, 대학의 국궁 동아리, 활쏘기와 활쏘기 문화에 관한 연구 조직을 비롯하여 활쏘기를 향유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향유 할 사람들 전반으로까지 다양한 형태로 전승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1971년 ‘궁시장(弓矢匠)’이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로 지정되면서 전통 방식으로 활과 활촉을 만드는 기술과 그 기술 보유자가 전통문화의 계승자로 인정받고 활과 화살의 제작 기술이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로서의 위상을 얻게 되었다.
- 3) 1998년 ‘사이버 국궁장’(현 국궁신문)을 시작으로 인터넷상에서 활쏘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크고 작은 모임이 생겨났다. 협회·단체의 홈페이지부터 각 사정의 홈페이지, 그리고 활쏘기를 하는 사람들의 크고 작은 모임까지 생겨나면서 인터넷은 활쏘기, 활터 등에 대한 정보와 자료, 그리고 의견들이 오가는 장이 되었다.
- 4) 2010년 「문화재보호법」 전면 개정에 반영되면서 무형문화유산의 외연이 확장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2015년에는 「문화재보호법」 제정 50여 년 만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5) 예천박물관 기획, 『2024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활쏘기 무형문화 전승과 활용』, 민속원,

이렇게 전통의 재맥락화와 제도적 변화에 영향을 받아 현대의 활쏘기 계승은 제도적 보호, 생활체육화와 동호인 기반의 확장, 지역 문화·관광 자원화, 교육·공공 프로그램, 학술·기록화, 디지털 네트워크화 등 여러 축이 중첩된 다층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부천시를 사례로 하여 도시 맥락에서 활쏘기가 어떻게 계승·재구성·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3. 부천시 활쏘기 문화의 활용 현황

부천시는 활쏘기 문화를 도시적 환경에서 유지·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이 병행하는 복수의 활터(사정)를 운영하고 있으며, 활박물관·체험교육프로그램 등 제도적 기반과 동호회·생활체육 조직을 결합한 전승 생태를 형성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활터

(1) 성무정(聖武亭)

성무정(聖武亭)은 부천시 심곡본동 산2-26 일대에 위치한 전통 사정(射亭)으로 활터가 언제 세워졌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조선 말기부터 이 활터를 이용해 왔다고 전해진다. 1941년에는 소학정(素鶴亭)이라 명명하고 30여명의 사원(射員)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해방기와 1950년대 전후를 거치며 소멸과 복원을 반복했고, 1958년 계무정(桂武亭)으로 개칭되었고, 1960년대에는 용호정(龍虎亭), 소성정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며 지역 궁술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1967년 활터가 위치한 성주산(聖柱山)의 성(聖)자와 무예(武藝)의 무(武)자를 따서 성무정으로 개칭한 뒤 그 이름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⁶⁾ 성무정의 초대 사두인 백인(白寅) 김장환(金章煥) 선생은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기능보유자로, 선대의 뒤를 이어 '부천 활'의 장인으로 활동하였으며 활쏘기에도 적극 참여해 각종 대회에서 다수의 입상 경력을 남겼으며 부천 활 박물관의 설립에도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현재 성무정은 정기적인 연습과 대회를 개최하고 초보자를 위한 안전교육과 훈련을 진행하는 등 지역 전승과 생활체육 기능을 병행하고 있다. 성무정의 공간은 이처럼 시민과 회원들의 활쏘기 활동 공간으로 기능하면서도 부천의 시간, 지명, 인물의 기억, 의례 등 전통 활터의 장소성과 마을 생활사와 연결된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2) 부천정(富川亭)

부천정은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 부천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위치한 활터로, 성무정과 함께 부천 지역 활쏘기 문화의 현대적 계승을 이끌고있는 대표적인 사정이다. 2001년 부천시가 전통 활쏘기 문화의 계승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현대식 국궁장으로, 지하 1층, 지

2024, 72쪽.

6)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디지털부천문화대전 '성무정'. 검색일: 2025.10.26. (<https://bucheon.grandculture.net/bucheon/toc/GC01601585>)

상 2층으로 구성된 공간의 2층엔 145m 사거리를 갖춘 사대와 과녁, 선수 대기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1층에는 전시실, 공방, 활 보관실, 탈의실, 샤워실, 기계실, 교습실 등이 있다.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활터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 내 활쏘기 문화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부천정은 공공기관인 부천도시공사와 연계된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이 중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는 하루 4회의 강습이 진행되며,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활쏘기 교실, 안전교육, 입문 강습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강습용 활과 화살이 구비되어 있으며, 전문 강사가 상주해 활쏘기를 생활체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2003년 대한궁도협회에 사정으로 등록된 이후로는 전국 단위 대회 개최와 국궁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연수기관으로도 지정되어 국궁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⁷⁾

부천정은 전통 활쏘기의 예절과 기술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시설과 개량궁을 도입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현재는 지역 동호회를 중심으로 정기 연습과 자체 대회를 운영하며 실기 전승을 이어가는 한편, 시민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활쏘기의 대중화와 교육적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부천정이 단순한 실기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와 문화기관이 협력하는 복합적 전승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무정이 오랜 역사성과 장소성을 지닌 전통 사정이라면, 부천정은 제도적 기반과 현대적 운영을 바탕으로 활쏘기를 생활문화로 확장해 나가는 활터로 평가할 수 있다.

2) 전시

2004년 개관한 부천 활박물관은 우리나라 전통 활을 단독 주제로 전시하는 공립 박물관으로, 고 김장환 선생이 기증한 유품 240점을 포함해 약 500여 점의 활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활과 화살, 관련 도구와 기록물이 전시되어 있어 우리 활쏘기 문화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박물관은 전시실과 교육실, 영상실 등으로 구성되며, 전시실은 상설·기획·기증자 전시와 수장고로 나뉜다. 입구에는 시선을 끄는 신전기화차가 배치되어 있으며, 실물 크기의 말 탄 병사 디오라마와 대신기전 등도 전시 효과를 높인다.

신전기화차에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 구역은 시대별 화살과 활이 전시되어 있다. 실물 활, 화살을 비롯해 옛 그림이나 문헌을 활용한 패널, 병풍 등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동선 말미에는 5G 실감 국궁 체험 구역이 마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김장환 선생의 흉상을 지나 기획전시실과 기증자 전시실로 이어진다. 기증자 전시실에는 김장환 선생이 직접 제작한 각궁과 활 제작을 위해 사용한 조선톱, 사련칼, 조막손 등의 도구가 전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화약무기와 화포가 전시된 총통 구역을 감상하는 것으로 전시를 끝맺는다.

상설전시실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활인 '각궁'을 비롯하여 예궁, 정량궁 등의 활과 유업

7) 2021년 부천도시공사 유튜브 '강사님이 들려주는 부천시 궁도장이야기' 참고 작성.
(<https://youtu.be/-vMHGrV-a4U?si=V1fZ0dfbbVswzoS7>)

8)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디지털부천문화대전, '부천시 궁도장'. 검색일: 2025.10.26.
(<https://bucheon.grandculture.net/bucheon/toc/GC01601790>)

전, 편전, 효시 등 시대별·용도별 화살, 전투에서 사용되었던 화포인 총통 등 100여점의 활 관련 전시물을 볼 수 있다. 총통 구역의 맞은편은 교육실 공간이다. 교육실로 활용하는 공간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서 온돌방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이 방을 지나서 야외 체험장으로 나갈 수 있으며 야외 체험장에서는 주로 활쏘기 체험을 해 볼 수 있다. 교육실에서는 대나무 활 만들기, 활쏘기, 전통놀이 한마당, 한지공예 등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다. 부천 활 박물관은 상설전시 외에도 다양한 기획전시를 연 1~2회 진행하고 있다.

<표 1> 부천 활 박물관 기획전시

일시	기획전시 주제
2005. 07.	한국의 활 문화
2005. 12.	각궁의 이해
2006. 07.	전쟁과 무기
2007. 12.	TEXT(텍스트)로 접하는 우리생활 속의 활
2008. 12.	명장(名將) 이성계! '활로 조선을 세우다'
2011. 09.	다시보는 최종병기 활
2012. 09.	경기도 공사립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 <따로 또 같이 빛깔을 쏘다Ⅲ-지피지기>-이주민 이야기, 활
2012. 12.	활쟁이, 그들의 활, 다시 타오르다
2013. 11.	맥궁로드=악기로드
2014. 04.	경기도 공사립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 <이야기가 있는 뮤지엄 하우스>-찰현(擦絃)악기
2014. 12.	나라의 기틀을 세운, 조선무과
2015. 05.	2015경기도 공사립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 <나라를 지켜낸 과학의 힘>
2015. 12.	양궁
2016. 07.	경기도 공사립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 <우리 활 재료>
2016. 08.	부천시 박물관 연합전 <만남, 우리들의 이야기>
2016. 11.	활(弓)로 태평성대를 꿈꾸다
2017. 09.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궁시장 유포제>
2018. 11.	각궁, 다채로운 옷을 입다
2019. 08.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김박영
2020. 09.	2020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활활 공작소 시민참여 작품전>
2021. 09.	2021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우리동네 공방 즐기기> (온라인 전시)
2021. 10.	「뿔활展」 네 번째 이야기, '과녁과 마주서다'
2021. 10.	2021년 부천활박물관 기획展 <활쏘기, 매력에 취하다>
2022. 07.	2022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체험전시 '오락장五樂場'
2023. 08.	2023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보유자 기획 전시 '각궁 제작 설명서' 展
2024. 07.	2024 부천활박물관 개관 20주년 특별전 '畫中射藝(화중사예): 옛 그림 속의 우리 활'
2024. 10.	2024 국가무형유산 전승활동 지원전 '궁방탐방(弓房探訪)'

위의 <표>는 부천 활 박물관 도록과 홈페이지, 관련 기사를 참고해 지금까지 부천 활 박물관에서 개최한 기획전시를 정리한 것이다. 대체로 활과 관련된 기획전시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악기나 공예 등 실생활과 연계한 전시도 있다. 기획전시는 외부 지원사업을 통해 실시되는 형태로도 진행되었다.

부천 활 박물관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관람객이 자주 찾는 전시관으로, 상설전시와 기획 전시 외에도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의 'VR 체험관'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3) 교육·체험프로그램

부천 활박물관은 앞서 소개한 전시 외에도 전통 활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강좌 및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2> 부천 활 박물관 운영 교육·체험 프로그램

2007	• 특별전 기념 작품으로 만나는 우리 생활의 활 문화 강연회
2007~2017	• 대나무 활 만들기
2011	• 복권기금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감각의 확대 관계의 확장 展> 교육·체험 프로그램 '촉각으로 만나는 활'
2012~2014	• 전통놀이
2012~2015	• 주말 활쏘기
2013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부천시 박물관의 <꿈꾸는 이야기 박물관> '나도 도슨트, 나도 CF스타'
2014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부천시 박물관의 '별의별 꿈틀 이야기 박물관-박물관 이야기' • 경기도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이야기가 있는 뮤지엄 하우스> 교육·체험 프로그램
2014~2017	• 활활극장, 활활 이야기
2015	• 도전! 무과급제 • 부천시 친환경급식센터 <신나는 체험학습 함께 떠나요> • 경기도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나라를 지켜낸 과학의 힘>- '투석기 만들기', '풍력자동차 만들기', '에어로켓 만들기', '대단한 대나무 활의 힘'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마을을 품은 이야기 박물관> '도란도란 나의 박물관 이야기' • 제11회 부천시 평생학습축제
2016	• 경기도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우리 활 재료 展>- '서예교실', '한지공예', '활 문화 탐방' • <활(弓)로 태평성대를 꿈꾸다>- '차 문화 강좌', '대나무 활 만들기'
2016~2017	• 전통놀이 한마당 • 활문화 교육과 활쏘기

개관 이래 2017년까지 부천 박물관에서 진행했던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보면, 전시와 연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외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교육프로그램 두 가지로 교육프로그램의 성격이 나뉜다. 최근(2024년도)에 진행한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3> 2024년도 부천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인원	체험비용
대나무 활 만들기	2024.4.~11.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0:30~12:30	20명	28,000원
활 문화교육과 활쏘기	2024.4.~11.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4:00~16:00	20명	2,000원
공예교실	2024.4.~11.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3:00~15:00	15명	10,000원
나만의 자개 만들기	2024.5.~7. 매주 목요일 15:00~17:00	15명	10,000원
보자기 100가지 활용법	2024.5.~7. 매주 화요일 10:00~12:00	15명	10,000원
철릭 만들기	2024.6.~8. 매주 목요일 10:00~12:00	10명	70,000원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쇠뇌 만들기	여름방학 중 진행	10명	40,000원
5G 실감형 콘텐츠 국궁체험(상설)	2024.1.~12.	상설	무료
활활 이야기	2024.1.~12.	상설	무료
문화가 있는 날 전통놀이 한마당	2024.1.~12. 매월 마지막 수요일 14:00~16:00	회당 10명	무료

총 10개의 프로그램 중 공예 관련 4개의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활과 활쏘기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은 총 6개이다. 2025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편사게임 활동지’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⁹⁾

부천 활 박물관은 개관 초기부터 꾸준히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하고 있다. 이는 부천 활 박물관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고 인접 학교가 상당 수 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천 활 박물관 개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궁시장과 궁시교육전수자와 함께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진행하는 방식으로, 활 만들기 키트를 개발하고 활과 관련된 교육자료 제공 등에 서로 협조하고 있다.

9)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참고. (<https://www.bcf.or.kr/>)

이처럼 부천시는 활터의 보존과 현대적 운영, 전문 박물관을 통한 전시, 그리고 시민 참여형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전통 활쏘기 문화를 일상 속 생활문화로 확장시키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으로 계승·활용해 나가고 있다.

4. 도시공간·공동체·콘텐츠로 확장되는 전략

앞서 살펴본 부천시 활쏘기 문화의 활용 현황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전통 활쏘기 문화가 도시공간, 지역공동체, 그리고 문화콘텐츠로 확장되기 위한 전략적 접근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활터의 장소성, 공동체 참여의 지속성, 그리고 현대적 매체와의 융합 가능성을 중심으로 도시문화자산으로서의 ‘활쏘기’에 대한 현대적 전승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1) 활터의 장소성을 활용한 도시문화 확장 전략

(1) 활터의 장소성-상징성-연계성의 활용

활터는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전통 기술의 전승 공간 이외에도 특정 지역의 역사와 공동체 기억이 축적된 장소로서의 상징성을 지닌다. 이러한 장소성은 도시공간 속에서 활쏘기 문화가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되며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의미가 결합된 복합적 문화자산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활터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도시문화자산과의 연계를 통해 활쏘기 문화를 확장하는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앞서 부천시 활쏘기 문화의 활용 현황에서 언급한 ‘활터’인 성무정, 부천정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활동의 대부분이 정기 연습, 자체 대회, 시민 대상 강습 등에 집중되어 있어 생활체육 중심의 활동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부천 지역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활터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활터 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은 대부분 건강, 취미, 경기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활체육에 한정된 활용만 하기에는 부천 지역의 각 활터는 그 자체의 고유한 특성과 주변 자원을 바탕으로 생활문화적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성무정은 오랜 역사성과 장소성을 지닌 전통 사정으로, 지역 정체성과 연결될 수 있으며 인근의 부천시립 심곡도서관, 활터어린이공원, 성주산 아이숲터 등과 연계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부천정 또한 부천 활박물관과 부천 레포츠공원, 종합운동장 내 시설과 결합해 교육·체험·전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어 문화자산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부천의 활터는 박물관 전시, 시민 체험, 지역 축제 참여 등의 활동과 연계하여 생활체육을 넘어 생활문화의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박물관-활터-공원 연계형 ‘활 문화 클러스터’ 조성

부천 활박물관과 부천정, 그리고 인근 레포츠공원은 서로 인접해 있어 하나의 문화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 세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면 전시 관람에서부터 활쏘기 체험, 실제 실기 연습, 그리고 공원에서의 휴식까지 이어지는 복합적인 문화

동선을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박물관에서 활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본 뒤 곧바로 부천정에서 활쏘기를 직접 체험하고, 이어 공원에서 국궁 시연 행사를 즐기는 방식이다. 이러한 연계는 시민들이 활쏘기를 단순한 체육 활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향유 할 수 있는 생활문화로 경험함으로써 도시공간을 토대로 하는 문화 향유의 기반이 될 것이다.

(3) 공동체 기억과 장소성의 재구성 활용

부천은 예부터 활쏘기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무예이자 여가 활동으로 자리해 왔으며, 성무정은 그 역사적 흔적을 보여주는 대표적 공간이다. 이러한 활터는 단순한 훈련장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모임과 교류가 이루어지던 장으로서 공동체의 기억을 담아내며, 장소성의 차원에서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부천 활박물관, 부천정, 인근 공원과 같은 도시문화자산들을 연계해 과거의 기억과 장소성이 현대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활쏘기는 생활체육을 넘어 생활문화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성무정과 김장환 선생의 활동은 지역 인물사와 활터의 장소성이 결합된 대표적 사례로 주민 구술·사진·기록과 같은 ‘생활사 자료의 디지털아카이브’나 ‘마을 전시’로 재구성 할 경우 공동체 기억을 문화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무정 사두 구술기록’이나 ‘부천 활터 100년 사진전’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활터의 역사성과 공동체적 의미를 시민과 공유하는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부천시 심곡본동의 ‘활터 고개’, ‘성주산’, ‘까치울(작동)’ 등 활쏘기와 관련된 지명은 마을의 기억과 공간 인식을 담고 있는 생활사적 흔적이므로 도시재생이나 공원 조성 등의 과정에서 이를 해설 콘텐츠로 활용한다면 장소 기반의 문화적 서사를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활터고개 이야기길’이나 ‘성무정 마을기록관’, ‘성주산 지키기 시민운동 기록’¹⁰⁾, ‘봉천이와 서른이 형제’ 등 과 같은 장소 기반 콘텐츠 개발은 활터의 장소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

2) 공동체 기반의 활쏘기 문화 참여 전략

전술하였듯이 현재 활터 운영은 회원 중심의 폐쇄성이 강하며 외부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연계성을 저해하고 있다. 부천정 대관 문제¹¹⁾에서 드러나듯 시설 이용을 둘러싼 갈등은 공공성과 개방성을 약화시키며 이는 지역 공동체의 폭넓은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현재의 공동체 참여가 활쏘기를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들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활쏘기가 지역사회 전체의 생활문화로 확산되는데 있어 큰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활쏘기 문화가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 생활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실제 활을 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시민·청소년·가족 단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10)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디지털부천문화대전, ‘성주산 지키기 시민운동 기록’. 검색일: 2025.10.26. (<https://bucheon.grandculture.net/bucheon/toc/GC01600444>)

11) 장상욱 기자, ‘을의 갑질? 활터 공유 막아서는 국궁장 ‘부천정’’, THE복지타임즈, 2020.5.30. 검색일: 2025.10.29. (<https://www.bokjib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1>)

(1) 시민 참여 프로그램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활터를 보다 개방적이고 생활문화적인 공간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매월 1회 활터를 무료로 개방하는 ‘활터 개방의 날’ 행사를 운영하여 안전 교육 후 누구나 활쏘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문화 동호회와의 연계를 통해 국궁을 글쓰기·사진·그림 등 다양한 활동과 결합시킴으로써 문화적 확장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한복 활쏘기 체험이나 시민 공사 퍼레이드와 같은 프로그램을 지역 축제나 이벤트에 도입하면 활쏘기는 지역의 대표적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

경북 예천의 ‘활기찬 예천 활 체험센터’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좋은 참고 사례로,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활쏘기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단체 체험 패키지 ‘활소풍’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 체험과 활쏘기를 결합한 융합형 프로그램과 활 서바이벌, 활 공성전과 같은 신체활동과 게임 성격을 결합한 프로그램 등으로 활쏘기를 활터 회원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전체가 공유하는 생활문화로 확산시킬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청소년층의 참여 확대는 활쏘기 문화의 지속성과 세대 전승을 위한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교 연계 교육을 통해 박물관과 도서관이 협력하여 국궁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을 운영한다면 청소년들은 활쏘기를 단순한 체육 활동이 아닌 지역 문화유산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학이나 주말에 운영되는 청소년 국궁교실을 통해 기본기 교육과 안전 교육을 제공하면 꾸준한 참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학생 국궁 동아리 유치와 협력 활동을 덧붙인다면 청년 세대의 전승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0~20대 젊은 세대의 축제나 경연 프로그램 참여는 부천시의 활쏘기 문화 계승에 활력을 높이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청소년층의 흥미와 안전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사례로 경기도 오산의 ‘슈팅존(Shooting Zone)’을 들 수 있는데, 이곳은 실내 양궁 테마파크로 전문 코치가 지도하는 체험·레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등학교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스크린 양궁이나 서바이벌 양궁과 같은 게임형 체험은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몰입하면서도 집중력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제공하며, 동호인 대회 참가 기회를 제공하여 대학생과 청년층이 활쏘기를 스포츠이자 문화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가족 단위 참여 프로그램

가족 단위의 참여는 활쏘기를 생활문화로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쏘기를 배우는 주말 클래스를 마련한다면,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 세대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원로 공사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구술·시연회를 개최하고, 가족 단

위로 관람과 참여를 유도한다면 활쏘기의 역사성과 공동체 기억을 자연스럽게 전승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가족 축제 연계 프로그램으로 활터 인근 공원에 가족 중심 국궁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면 지역 축제 속에서 활쏘기가 친근한 생활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동시에 시민들의 문화적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 광양의 '화살로드: 활터 페스티벌'은 좋은 참고 사례가 된다. 광양 공시전 수교육관이 주관한 이 축제는 100년 역사의 활터 유림정을 행사의 메인 공간으로 활용해 활쏘기 대결·전시·공연과 함께 어린이 활쏘기 체험, 전통의상 체험, 공예·VR 체험, 가족 피크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고, 지역 전통을 반영한 먹거리와 공연을 즐기며 하루를 보내도록 설계된 점은 활쏘기를 가족 친화적 생활문화로 확장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는 부천에서도 활터와 공원을 연계한 가족 중심 축제를 기획할 때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다.

(4) 활쏘기 공동체 전통 계승 프로그램

활쏘기 공동체 전통 계승 프로그램은 활터에서 전승되어 온 제례와 편사 같은 전통 관습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공동체적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둔다. 먼저 활터 제례(대사례, 향사례)를 원로 공사와 지역 주민이 함께 준비하고 시민과 청소년이 참관·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활쏘기의 정신적·문화적 의미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활터 간 교류 행사였던 편사와 타편사를 지역 축제와 연계해 국궁 동호회, 대학생 동아리, 시민 공사팀이 함께하는 친선 경기로 발전시키면 활쏘기는 단순한 경기에서 벗어나 공동체 교류의 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인접 지역에서 연1회 진행 중인 '인천 편사놀이'와의 공동 개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제례와 편사에 사용되는 의복, 절차, 음악 등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시민과 가족 단위가 직접 참여 하도록 한다면, 전통 관습은 단절된 의례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향유되는 문화 체험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3) 활쏘기 문화의 콘텐츠화와 융합 전략

현대 사회에서 활쏘기 문화의 지속과 확산을 위해서는 단순한 전통의 보존을 넘어, 다양한 콘텐츠화 전략과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1)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해석

활쏘기의 미학적·상징적 요소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공연, 전시,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확장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활쏘기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공동체적 규범과 의례적 상징성을 지닌 문화적 행위로서, 이를 시각적·서사적으로 재구성하면 문화 향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2) 관광 자원화와 지역 축제 연계

관광 자원화와 지역 축제와의 연계는 활쏘기 문화의 현장성과 체험성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유효하다. 부천의 활터, 활박물관, 공원 등은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 잠재력이 크며, 지역 축제와 연계한 활쏘기 시연 및 체험 프로그램은 시민과 관광객이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한복을 착용한 활쏘기 체험은 전통적 미학을 강조하면서도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으며, 대학생 국궁 동아리의 참여는 젊은 세대의 활쏘기 문화 진입을 촉진하고 공연·경연 프로그램으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2025년 11월 22일) 진행된 ‘한복인 활쏘기 대회’와 같은 행사는 이러한 융합 전략의 실천적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3) 교육 콘텐츠와 학습 매체화

교육 콘텐츠와 학습 매체화는 활쏘기 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재 및 체험형 학습 콘텐츠 구성, 박물관 교육과정과의 연계는 활쏘기를 학습과 문화 향유의 매개로 전환시킨다. 특히 부천시의 특성을 살려 만화·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접목을 시도할 경우, 활쏘기를 소재로 한 캐릭터 개발이나 영유아 대상 그림책, 애니메이션 속 체험 요소 삽입 등을 통해 지역과 지역문화(축제 및 교육프로그램)와의 연계가 가능하다.

(4) 디지털 매체와의 융합

디지털 매체와의 융합은 젊은 세대와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AR·VR·모바일 앱을 활용한 장소 기반 콘텐츠 개발은 활쏘기 문화의 체험성과 몰입도를 강화하며, 예를 들어 ‘부천 활터 AR 지도’나 ‘국궁 디오라마 모바일 해설 앱’은 전통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디지털 매체로 활용될 수 있다. 부천 활박물관의 5G 실감 국궁 체험 구역은 전통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사례로, 향후 AR 기반 해설 앱이나 VR 국궁 시뮬레이션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문화 접근성과 확산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화와 융합 전략은 활쏘기를 단순한 전통 체육 활동에서 벗어나 관광, 교육, 디지털 문화가 결합된 지속가능한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확장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활쏘기 도시를 겨누다

본 발표는 활쏘기 문화를 전통문화의 지속과 변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역사적 전개와 현대적 계승 양상을 분석하고,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문화콘텐츠로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활쏘기는 오랜 시간 한국인의 삶과 정신을 구성해 온 실천적 문화로서, 공동체적 규범과 신체적 수련, 의례적 상징성을 함께 지닌 복합적 행위였다. 그러나 근대화과 화기의 보급, 사회 구조의 변화는 활쏘기의 일상적 기반을 약화시키며 전승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쏘기는 제도적 보호와 민간 실천, 생활체육화, 디지털 매체와의 융합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재생되고 있으며, 이는 전통문화가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되고 실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03년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채택 이후, 한국 내 무형문화재 정책은 보유자

중심의 원형 보호에서 벗어나 공동체 중심의 향유와 활용, 그리고 다양한 전승 주체의 참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활쏘기 문화의 계승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2020년 활쏘기가 ‘보유자·보유단체 없이’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례는 그 상징적 전환점을 보여준다.

부천시의 활쏘기 문화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지역 실천이 결합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성무정과 부천정 등 지역 활터는 오랜 역사성과 장소성을 지닌 공간으로서, 단순한 생활체육의 장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기억을 담고 있는 문화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은 회원 중심의 제한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공공성과 개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활터 운영의 폐쇄성은 지역 공동체의 폭넓은 참여를 제약하며, 활쏘기 문화의 확장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활쏘기 문화의 콘텐츠화와 융합 전략은 단순한 보존을 넘어 실천 기반의 확장과 문화적 재맥락화를 위한 핵심적 접근으로 제시될 수 있다. 공연, 전시, 스토리텔링 등 미학적 요소의 현대적 재해석, 관광 자원화와 지역 축제와의 연계, 교육 콘텐츠 개발과 학습 매체화,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은 활쏘기 문화가 도시문화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 구체적 경로를 제공한다. 특히 부천시의 활박물관, 공원, 도서관 등과의 연계는 장소 기반 콘텐츠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며, AR·VR·모바일 앱을 활용한 실감형 체험은 젊은 세대와 관광객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결론적으로 활쏘기 문화의 현대적 계승은 제도적 보호, 지역 실천, 콘텐츠화 전략이 유기적으로 결합 될 때 더욱 풍부한 문화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는 전통문화의 미래적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활쏘기는 전통문화, 전통 무예를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실천, 관광과 교육, 디지털 문화가 융합된 생활문화 플랫폼이자 더 나아가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문화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활쏘기 문화의 계승과 활용은 단순한 전통의 보존을 넘어 도시 공간 속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문화적 실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활쏘기가 겨누는 대상은 더 이상 과녁만이 아니라, 도시의 기억과 공동체의 삶, 그리고 문화적 미래이다. 이 발표의 주제인 「도시를 겨누다 - 부천시 활쏘기 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 전략」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활쏘기 문화가 도시문화의 구성 요소로 자리 잡고, 지역성과 공공성, 참여성과 창의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전략을 통해 확장될 수 있음을 제안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마르쿠스 슈뢰르, 정인모·배정희 번역,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2010

에릭 홉스봄, 방지향 외 번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이-푸 투안, 윤영호, 김미선 번역, 『공간과 장소』, 사이, 2020

예천박물관 기획, 『2024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활쏘기 무형문화 전승과 활용』, 민속원, 2024

부천문화원, 『부천향토자료집⑤ 부천의 궁시문화』, 2005

부천 활박물관, 『부천 활박물관 소장품 도록』, 2017

장상옥 기자, '을의 갑질? 활터 공유 막아서는 국궁장 '부천정'', THE복지타임즈, 2020.5.30.

경기도메모리 디지털아카이브 <https://memory.library.kr>

국궁신문 <http://archerynews.net/news>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참고. <https://www.bcf.or.kr>

부천시 체육회 통합 홈페이지 <https://bcsports.bucheon.go.kr/>

향토문화전자대전 디지털부천문화대전 <https://bucheon.grandculture.net/bucheon>

2025 부천박물관 인문학 특강

—
**활쏘기 문화의
전승과 활용**
: 지역에서 세계로
—



발제 3

**도시를 겨누다-부천시 활쏘기 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전략**

토론자 **이재완**
예천박물관장

「도시를 겨누다-부천시 활쏘기 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 전략」

이재완(예천박물관)

발표자께서는 부천의 활쏘기 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부천의 활 관련 공간, 프로그램, 향유층을 분석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부천의 활쏘기 문화 자원을 조사·분석하고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신 점에서, 그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유네스코 협약 가입, 「무형유산법」과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은 활쏘기와 같은 공동체 종목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는 법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전통문화의 계승과 활성화 차원의 다양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대한 논의의 장 조성에 기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유산 활성화 논의가 여러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역 구도에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토론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부천에서 활쏘기 문화가 갖는 지역사적 위상과 활용의 당위성

활쏘기 문화가 부천을 드러내고 지역브랜드를 제고하는 데 적절한 소재인가? 활쏘기 문화를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활쏘기 문화를 대표 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는가? 부천에 국가무형유산 궁시장, 활박물관, 사정 등의 활 관련 자원이 있지만, 부천이 전국 구도에서 대표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점에서 부천의 활쏘기 문화를 특화해야 할 이유에 대해 다양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아가 이 고민은 부천활박물관을 비롯한 활과 관련한 문화기관과 이곳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활성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2. 부천 활쏘기 문화의 브랜드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부천과 활의 연관성 강화를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부천에서 활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전문가, 인적자원, 향유층 등을 육성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활 관련 고고 유물에서부터, 향사당, 활 관련 기록 등 지역사와 연관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발표자가 제시한 활터의 장소성을 활용한 다양한 전략과 공동체 기반의 활쏘기 문화 참여 전략에 더해 새로운 연구 성과를 사정·공시장·박물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접목하고 이를 축제와 행사로 확장해 나간다면, 활쏘기 문화는 도시브랜드의 주요 소재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활쏘기 문화를 도시 정체성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활쏘기 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을 위한 중심 주체는 누구인가?

발표자는 다양한 활용 전략을 논의하고 있지만, 그 주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논의와 같이 추진되려면 활쏘기 문화의 보존, 관리, 활용의 중심 주체가 자치단체가 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부천시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활쏘기 문화를 부천의 지역브랜드로 활용하려면 주민들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에도 유리합니다. 이는 관주도라는 비판을 수반할 수 있지만, 박물관, 사정, 도서관, 공원 등의 시설과 문화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프로그램과 행사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데에는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4. 다양한 주체의 기능과 역할, 거버넌스를 통한 육성

활박물관, 사정, 도서관, 공원 등은 각각 목적이 다른 시설입니다. 자치단체의 축제와 행사 등도 다양한 목적으로 개최됩니다. 성격이 다른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역할 분담에 따라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활박물관은 미션과 비전이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활박물관의 조직과 예산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활쏘기 문화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한다면 향후 유사 기관과 시설 연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활박물관은 부천시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유사 시설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면 부천 활쏘기 문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국가무형유산과 활쏘기 문화

공시장과 활쏘기는 국가무형유산이지만, 충분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부천의 공시장에게 정기공연을 위해 공개행사비를 지원하지만, 활쏘기 단체나 시설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연속해서 지원받겠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부천 활쏘기 문화는 국가의 지원만으로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예천군에서는 2014년부터 국궁과 양궁 등을 토대로 활축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울산시에서는 2024년부터 암각화에 새겨진 활쏘는 사람을 모티브로 활쏘기 세계 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특정 문화 소재를 지역 대표 브랜드로 창출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부천 활쏘기 문

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천시 정체성의 한 축으로서 활쏘기 문화가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자치 단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갖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조소연 선생님의 발표는 부천 활쏘기 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자, 향후 부천의 활쏘기 문화의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부천 활쏘기 문화에 관한 지역적 관심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부천활박물관 인문학 특강

활쏘기 문화의 전승과 활용

: 지역에서 세계로

발행일 2025년 11월
발행처 (재)부천문화재단 부천시박물관(부천활박물관)
발행인 한병환
총괄 문동수
기획 이준일
진행 김영주, 이준일, 채지원
디자인 인성
